

기업투자 명석 깔아주는 美...족쇄 채우는 韓

롯데, 루이지애나 31억 달러 투자
삼성·LG 등도 속속 투자이행
법인세 인하 등 각종 혜택 받아
국내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 '쑥'
1분기 설비투자는 10.8% 급감
大·中企 공장 '엑소더스' 현상도



신동빈 면담한 트럼프 "한국, 훌륭한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면담 모습. 트럼프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면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의 주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는 현상을 이같이 냉정하게 진단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1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를 투자해 대규모 에틸렌 공장을 준공했고, 삼성과 LG 등도 2017년 방미 경제인단에 올랐을 때 밝힌 대미 투자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3억8000만 달러를 들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전 공장을 건립하고 지난해 1월 가동을 시작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는 내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 테네시 가전 공장을 가동 중이고,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뉴저지 신사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미국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 늘릴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도 올해 들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2025년까지 16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총 5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코리아는 미국 조지아주와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S산전은 작년 말

기업명	투자 현황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주에 에틸렌 공장 준공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착공, 2025년까지 2단계 개발
삼성전자·LG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가전 공장 건설
한화큐셀코리아	조지아주와 태양광모듈 생산공장 건설 MOU 체결
GSEPS	뉴저지주 린트 가스발전소 보통주 10% 인수
LS그룹	북미 최대 ESS 기업의 일부 사업부 인수
한진그룹	LA화물터미널 개보수 관련 현재 마무리 공사 중
두산그룹	두산벙크, 두산퓨얼셀(아메리카) 등을 통해 현지 투자 진행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북미 최대 기업인 파커 하니핀의 에너지 그리드 타이(EGT) 사업부를 인수했다.

반면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얼어붙어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설비 투자는 전기 대비 10.8% 급감해 외환위기에 있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1~3월 국내 제조업의 자본재(각종 설비·장비) 공급은 전년 대비 23.3%나 줄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장기적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이와 별개로 단기 투자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급을 위해 투자 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민기 힘든 일도 벌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롯데와 삼성, LG 등은 미국 투자 대가로 일정 기간 법인세 인하, 인프라 시설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한국 엑소더스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 중소기업도 옮겨가고, 결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 투자·경영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내 투자를 살리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지난달 구직급여 7382억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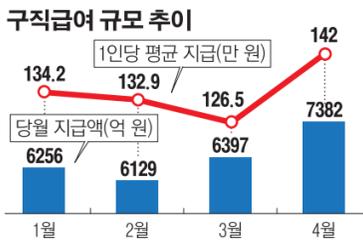
52만명에 지급...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탓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000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져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4월(545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달 6397억 원보다도 많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도록 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늘어난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상향됐다. 한 달에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5000명(14.2%) 늘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최근 2년 감사의견 정정될 듯

'적정'서 '비적정'으로...한영회계법인 '2년 전 성분변경 인지' 반영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감사 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판매사로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재무제표 수정 등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15면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측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감사 의견을 기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코오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재검토 대상은 기존에 적정 의견을 받은 2017년과 2018년 감사보고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미 2년 전에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감사 의견 수정은 한국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조치다. 개정 기준은 후속 사건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됐을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 코오롱티슈진에 적정 감사 의견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직후 인보사 성분 논란이 일었고, 코오롱이 2년 전에 인지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2018년은 물론 2017년 보고서도 의견 수정에 들어갔다.

통상 비적정 의견은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경기 일반버스 200원·직행 좌석 400원 오른다

이재명 "요금 인상 불가피...죄송"
김현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경기도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 좌석형 버스요금 400원 각각 오른다. 또 광역버스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 준공영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버스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



버스 대책을 발표한 뒤 손잡고 있는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 도지사. 연합뉴스

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버

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이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을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해외사업 행기는 구자열... 日고객사와 파트너십 강화

〈LS그룹 회장〉

이번주 일본 방문... JX금속과 제련 분야 경쟁력 강화 논의 지난해 11월 中 출장 이어 올 3월 말레이 경제사절단 참여 주력사업 세계 진출 목표... 성과 창출 위해 현장경영 쟁결음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며 숨 가쁜 해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고객사 방문을 통해 사업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구 회장은 매년 4~5월경 그룹 내 계열사들의 파트너인 일본 주요 고객사 경영진을 정기적으로 만나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이번 행사에는 구자열 LS엔트론 회장과 이광우(주)LS 부회장, 관련 사업 담당 임원들이 동행했다.

구 회장은 첫날인 13일 LS-Nikko동제련 공동 출자사인 JX금속(JX Nippon Mining & Metals)의 오오이 시게루 사장, 미우라 상무 등과 만나 양 사 간의 오랜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제련

분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안마(Yanmar), 후루카와 전기(Furukawa Electric), 미쓰비시자동차(Mitsubishi Motors), 몽벨(Montbell) 등 LS의 주요 사업 분야 파트너사의 경영진을 만나 회사 간 기술적·사업적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들은 각각 LS엔트론, SPSX(슈퍼리어에식스), LS오토모티브, LS네트웍스 등과 사업 협력 관계에 있는 고객사들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다.

마지막날에는 BCG(Boston Consulting Group) 도쿄사무소를 방문해 세계적인 일본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사례에 대해 공유받고, 그룹의 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13일 일본 도쿄 JX금속 회의실에서 고객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오이 시게루 JX금속 사장, 기시 구니오사사 사장, 구자열 회장, 이광우(주)LS 부회장, 구자열 LS엔트론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S

래상에 대해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LS그룹의 일본 총사업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8400억 원으로, LS전선, LS산전,

LS오토모티브 등이 판매법인 및 지사를 두고 약 20여 명의 주재원이 근무 중이다.

LS 관계자는 "구 회장이 평소 주력사업

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올해는 실행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만큼 향후 더욱 활발한 현장경영이 예상된다"며 "특히 그룹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미래 혁신단의 구자열 회장은 회장도 참여하며 미래 성장동력 준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한 후 같은 달 미국 전선회사 SPSX의 유럽 권선(자동차·변압기·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에나멜 코팅 구리선) 생산법인인 에식스 발칸(Essex Balkan d.o.o) 준공식에 참석해 현지 임직원을 격려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기회를 모색한 바 있다.

올 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고 LS 산전이 참여한 'PV EXPO 2019'에, 3월에는 대통령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말레이시아에 각각 방문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현장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GS 지분 또 늘린 '오너 4세' 허세홍... 세대교체 속도 낸다

〈GS에너지 전무〉

13~15일 4만 주 매수 지분을 1.57%로... 올해만 70억 투입 후계 라이벌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지분 격차 더 벌려

GS그룹 '오너 4세' 허세홍 GS에너지 전무가 GS 주식을 계속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계구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 전무는 13~15일 GS 주식 4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 허 전무가 현재 보유한 GS 지분은 148만2600주(1.57%)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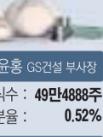
허 전무는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GS 지분을 늘리고 있다. 1월 3만5000주, 3

월 2000주를 사들였고 4월에는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지분을 매입해 6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가 보유한 GS 지분율은 올해 1월 1일 1.45%에서 5개월 사이 0.12% 증가했다. 총수 일가 중 최근 지분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올해 지분 확보에 들인 자금은 7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GS 오너 4세 중 후계 구도 라이벌로 꼽히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의

GS그룹 '오너 4세' GS 지분보유 현황

 허세홍 GS에너지 전무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주식수 : 49만4888주 지분율 : 0.52%
주식수 148만2600주 지분율 1.57%	주식수 143만2400주 지분율 1.51%	주식수 185만327주 지분율 1.95%	허철홍 GS칼텍스 상무 주식수 : 127만325주 지분율 : 1.34%

※출처 : 금융감독원

지분율을 넘어선 후에도 매입을 지속해 지분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허 사장은 지난해 GS 지분을 늘려 143만2400주(1.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지분 변동은 없다.

허장수 GS 회장이 70대로 고령에 접어든 가운데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 '오너 3세'가 지분을 매도하고 오너 4세는 지분을 늘려간다는 점을 볼 때 GS그룹의 세대교체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허 전무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삼양인터내셔널, 켄텍인터내셔널, GS파크24 등 GS계열사 8곳의 등기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GS 오너 일가 중 등기이사 최다 겸직자다.

허 사장은 오너 4세 중 가장 연장자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 경영을 맡아 그룹 후계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외 GS 경영권 승계 후보로는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허장수 GS 회장의 장남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허준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칼텍스 상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3호선 연장 믿었는데... 즐지에 베드타운 전략”

집단행동 나선 1·2기 주민들

“후곡마을 쪽 4억8000만 원 하던 30평대 매물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호가를 3000만 원 낮췄어요. 킨텍스 사거리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구도심 주택시장이 죽을 맛인데 3기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설상가상인 거죠.”

14일 만난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나도 킨텍스 원시지를 분양받은 상태라 살던 집을 지난해 말부터 6억 원에 내놨다”며 “하지만 도저히 팔리지 않아 3000만 원 정도 호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자 인근 1·2기 신도시 위주로 후폭풍이 거세다. 3기 신도시에 예정된 공급이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 혼잡 등으로 주거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 500여 명(경향 추산)은 “3기 신도시가 지역 슬럼화를 초래한다”며 12일 시위를 벌였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주택 수요 분산·교통혼잡 악재로 일산·파주, 발표 이후 집값 하락 인프라 약속해 놓고 3기 몰아주라 “후보지 철회하라” 거리로 나서

인 일산 주민은 18일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의 우려대로 일대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먼저 킨텍스 사거리 인근 신축 아파트들도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게 만들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중개사들도 놀라는 분위기다.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킨텍스 꿈에그린’ (1100가구)은 현재 60%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3월 입주한 ‘일산 힐스테이트’는 현재 30~40% 입주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3기 신도시 여파로 살던 집을 더 팔기 어렵게 됐으니 잔금 치르기 힘든 가구들이 많아졌다”며 “임대를 내놓을지 입주할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심해져 전에 없이 잠잠한 입주장”이라고 말했다. 구축 아파트가 기존의 신축 공급으로 약세장에 빠졌는데 옆친 데 달친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격으로 더 좋은 입지에 신규 택지가 발표됐다. 이 여파가 다시 신축 입주장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킨텍스 지구에는 ‘더샵 그라비스타’ (1020가구)가 6월, ‘킨텍스 원시티’ (2208가구)가 8월 입주하는 등 9000여 가구가 더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난항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반발 주민들에 따르면 고양 창릉(3만 8000가구)을 포함하면 고양에만 9만 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은 교통 개발 계획이 3기 신도시에 편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당초 계획대로 3호선을 연장해 파주 운정에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운정 신도시 1·2지구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되고 3지구까지 공급을 마치면 35만 명에 이른다”며 “3호선 연장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운정을 택한 지역민들이 많은데 갑자기 3기 신도시에 교통 호

재를 몰아준다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 삼성지구, 원흥지구만 있다고 했을 때 일산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지 않았다. 그때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서 그랬다”며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계속 퍼부으면서 주택 시장이 침체를 겪는 상황이라 같은 매를 맞아도 더 아픈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예정이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현장에서 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인천 계양 “협의도 없이 땅 뺏은 꼴” 부천 대장 “집값 상승·개발 기대 커”

표정 엇갈린 계양 vs 대장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생존권, 재산권을 내세워 반대하는 곳이 있는 반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지역도 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기 신도시를 결정한 정부의 조급함이 불러온 부작용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 주민설명회 또 무산... “주민 협의 없는 절차에 배신감” = “우리는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주민을 불모로 땅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고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3기 신도시 전면백지와 연합대책위원회(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연합)’ 회원들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5일 열기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된 자리였다.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민대책위의 지적으로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 3주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2차 설명회도 무산됐다.

계양구에서 오래 생활한 주민들도 신도

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이 반갑지 않은 분위기였다. 원하지 않는 토지 매각에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 토지 시가와 정부의 보상 기준의 격차가 큰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60대 부부는 “대를 이어서 살아온 곳인데 고향을 버리고 어디 가서 살겠냐”며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지가가 많이 올랐다. 토지 시가와 정부의 보상액 차이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기대심리 형성... “개발 기대감 커” =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분위기는 1차 지정 지역(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과 사뭇 다르다. 시장에 나왔던 토지, 주택 매물도 신도시 발표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

부천시 A공인중개사는 “신도시를 발표하고 나서는 거래가 끊겼다. 계약한다고 했던 매물도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땅이나 빌라 등 주택을 내놓은 매도자들은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심리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심리가 있는데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B공인중개사 역시 “발표 이후 매물이 다 들어갔다”며 “(개발하면) 좋아지니까 환영하는 반응이 있다.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올림픽보다 큰 운동회

관객도 박수 소리도 작은 경기지만 어린 선수들의 각오는 올림픽만큼 큼니다

건강한 체력과 인성이 자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세상 가장 큰 운동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은 사람입니다

KYOBO 교보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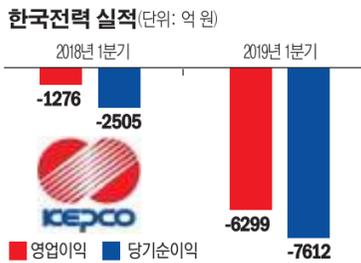
교보생명원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공무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한전 1분기 '어닝쇼크'... 역대 최대 6300억 적자

발전용 LNG 단가 16.1% 상승에 전력구입비 7000억 증가
작년보다 손실 5000억 이상 늘어... 전력 판매 감소도 원인
脫원전정책 추진 속 원전 가동률 증가로 4400억 절감 '역설'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한전은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62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1분기 기준으로 한전 설립 이래 최대 적자다. 애초 증권가에서는 3000억 원대 적자를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어닝쇼크'다. 12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지난해 1분기보다 적자가 5000억 원 이상 늘어

다. 발전사 등 계열사 실적을 뺀 별도기준 회계를 적용하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2조 4114억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2080억 원 영업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한전의 어닝쇼크 주범은 LNG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발전용 LNG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시장가격(SMP)이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



다. 지난해 1분기 SMP는 1kWh에 94.7원이었지만 올 1분기엔 110.0원으로 16.1% 올랐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7000억 원 늘었다. 그렇다고 LNG 발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 정책이 LNG를 중심으로 재

편되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전력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LNG 발전 증가 등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약 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한다. 전력 판매량 감소도 실적 악화의 한 요인이다. 올 초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전기 소비가 줄면서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1.4% 감소함에 따라 판매 수익이 3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게 한전엔 위안거리다.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 증가로 한전에

4400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로 지난해(54.9%)보다 20%포인트 넘게 올랐다. 한전은 정비 중인 원전 보수가 마무리돼 원전 이용률이 더 올라가면 경영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측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력 생산에 드는 총괄 원가가 확정된 이후 소비구조, 국민부담, 한전 재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전력 생산 원가는 늦어도 다음 달에 나온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국·세네갈 "물 분야 협력"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1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만수르 아마두 파에 세네갈 수리위생부 장관과 물 분야 협력을 위한 '한-세네갈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협약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

한국 '등록박람회' 부산 유치 나선다

2030년 개최 계획... 생산유발 43조·일자리 창출 50만개 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와 손잡고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 유치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산업부와 부산시는 인간, 기술, 문화-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북항 일대에서 '2030년 등록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처음으로 국내에서 등록박람회가 열리게 된다. 5년마다 열리는 등록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다. 엑스포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나뉘는데, 종합엑스포인 등록박람회는 인정박람회보다 규모가 크고 주제 제한도 없다. 한국은 1993년과 2012년 각각 대전과 여수에서 인정박람회를 열었지만 등록박람

회는 한 번도 유치하지 못했다. 2006년 여수에서 '2010년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유치활동을 벌였지만 중국 상하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차례(오사카·오키나와·츠크바·아이치)와 1차례(상하이)씩 등록박람회를 유치했다. 산업부는 2030년 부산 박람회의 생산유발 효과가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12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던 여수 엑스포보다 3배가 넘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50만 개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 등록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 6~7개국 이 개최권을 두고 한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면적 2배 허용

국무회의서 시행령 통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주민 편의시설의 건축 허용 면적이 2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허용 면적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

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 증가로 규모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아울러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총면적은 20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환율·유가 상승에 수출입물가 석달째 오름세

지난달 두바이유 3.9% 올라
D램 수출 전월대비 9.9% ↓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입물가가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다가서면서 수출입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기준 4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83.48(201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2월(0.2% 상승) 이후 오름세를 지속한 것이다.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5% 오른 88.91을 보였다. 역시 2월(1.8% 상승)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한 탓이다. 4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0.95원으로 전월보다 10.23원(0.9%) 상승했다. 이는 2017년 2월(1144.92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7월(30.0원, 2.7%) 이례 가장 컸다. 4월 평균 두바이유도 배럴당 70.94달러로 전월보다 3.9% 올랐다.



이에 따라 수출입 부문 모두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수출 4.6%, 수입 4.0%)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수출에서는 휘발유(10.7%)와 경유(3.8%), 제트유(2.5%) 등이, 수입에서는 병커C유(1.7%)와 부탄가스(3.8%), 나프타(6.6%) 등이 각각 올랐다. 또, 수출 부문에서는 가성소다(10.6%), 폴리프로필렌수지(2.8%) 등을 중심으로 화학제품이 1.0% 올랐고, RV자동차(0.9%)를 중심으로 수송장비도 0.9% 상승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광산품이 원유(6.9%)와 유연탄(4.0%) 등을 중심으로 3.1% 올랐고, 화학제품도 메틸에틸

케톤(6.0%)과 플라스틱 필름(0.9%) 등이 오르며 1.0% 상승했다. 반면 수출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는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9월(-0.2%) 이후 8개월째 내림세다. 특히 반도체(-5.2%)와 반도체 중 D램(-9.9%) 부문은 전월(각각 -3.4%, -5.2%) 하락세에서 확대됐다. 반면 환율 요인을 제거해 볼 수 있는 계약통화기준으로 보면 수출물가는 0.4% 하락한 86.27로 두 달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반면, 수입물가는 0.7% 상승한 92.08로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국내서 퇴출

정부 '배출가스 조작' 인증 취소

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다. 피아트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방식은

과거 폭스바겐(2015년 11월), 닛산(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지난해 4월) 경유차 사례와 유사하다. 피아트사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아트사는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문 대통령 “野 협조해야”… 나경원 “文, 과거 집착”

靑·한국당 대화 형식 평행선
文 “국가적 문제 힘 모아야”
나 “문, 사회주의 경제 심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 조기 개최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며 문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의 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 있다고 역공을 퍼면서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단독회담과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러 당이 함께 모여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없다”며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렸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13일 발언에 대해 “지금 가장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낡은 이념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 정권이야말로 낡아 빠진 사회주의 경제에 심취해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인 3당 여야정 협의체는 극구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민주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해 3당 여야정 협의체 개최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해찬 “새 정부 정책 적응 못하는 공무원 있어”

“총선, 인위적 물갈이 없어
시스템 공천 반드시 실현”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총선 공천에 대해 “전략 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을 구성해 총선 물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당한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치 신인·청년·여성·장애인에게 고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룰에 따라 경선하게 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몇 프로 물갈이를 할 생각이나 기준은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해서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며 “지난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 경제 혁신의 물꼬를 텃다”며 “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경제 영역으로 인정된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개인적 대화가 공개되면서 불거진 정부 관료에 대한 당정의 불만과 관련, “지난 정부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나 분위기가 달라 적응 못하는 관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먼저 국회 접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조현정 기자 jhj@



안동 찾은 앤드루 킹 왕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14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담연재에서 여왕의 메시지와 방문 인사를 전한 뒤 권영세 안동시장으로부터 환영 선물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회담 결렬 후 北 미사일 발사에 美 선박 압류 점점 꼬여가는 북미관계

최근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4일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를 비난하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최근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대해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 관계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앞으로 정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직접 미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선박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해 11일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했다. 또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태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건은 북미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향후 대북 제재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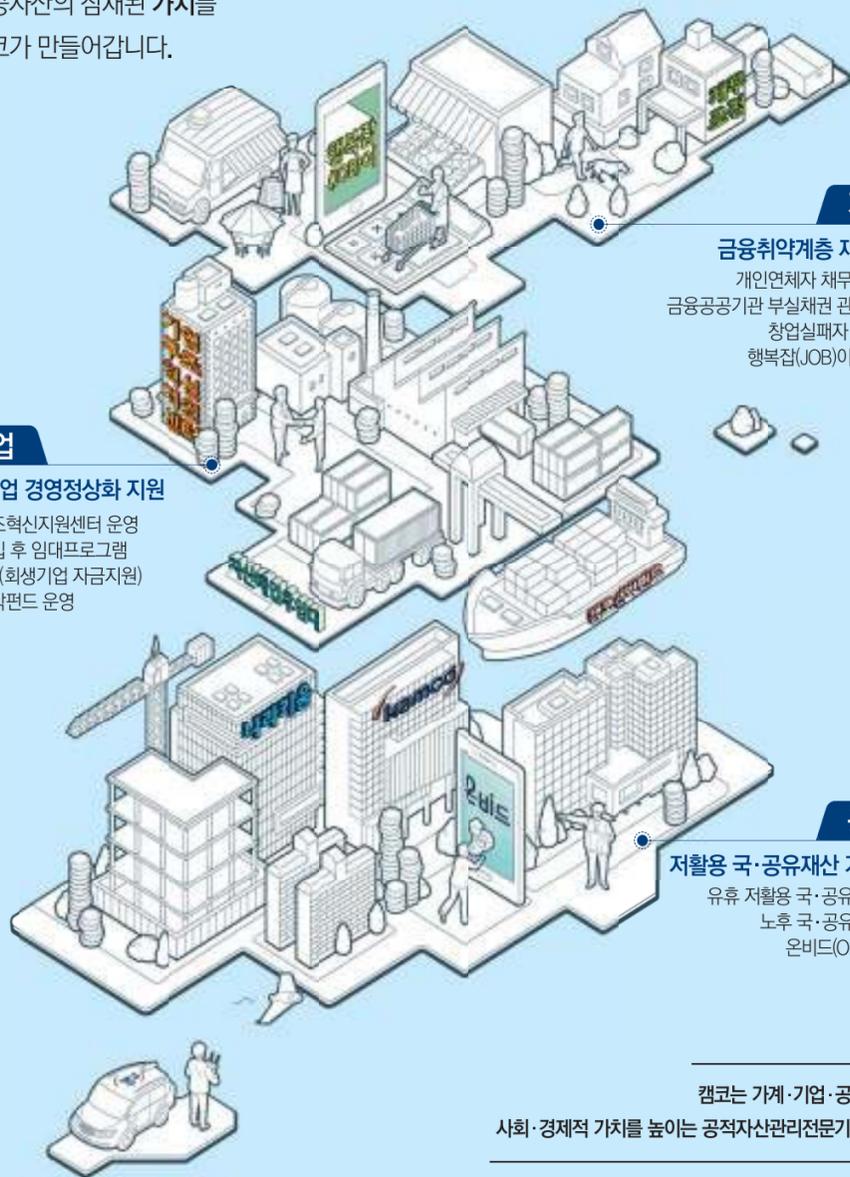
ABC뉴스에 따르면 미연방 법원이 와이즈 어니스트호 자산 몰수를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매각하거나 매각 불발 시 미 해군 등의 훈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관세폭탄 들고 증시 달래기... 트럼프 '두 얼굴'에 시장은 '덜덜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세계 시장이 일희일비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무역협상의 성패 여부를 3~4주 안에 알려 주겠다"며 "매우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여지를 남겼다. 3~4주는 관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관세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UPI연합뉴스

관세 무기로 中과 '폭탄 돌리기' 글로벌 시총 1兆 달러 증발하자 '협상 매우 성공적' 긍정 메시지 아시아 증시 안도... 낙폭 줄여

세계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돌리면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긍정적인 한마디면 요동치던 시장도 금세 잦아들고 있다.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인 중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이어면서 동시에 자국 증시 움직임에 민감한 정치인이기도 한 트럼프의 이중성에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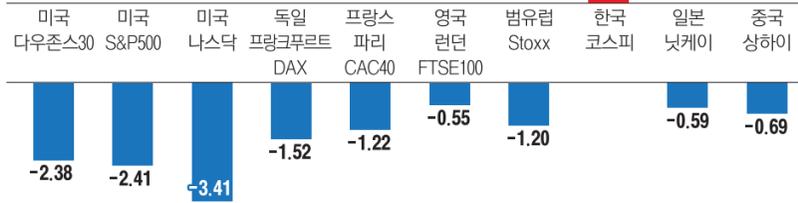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거 뒤들이는 막대한 관세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중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후 증시는 급락했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렸다. 13일 중국은 내달 1일부터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세계 주식시장은 또 흔들렸다. 이날 다우지수는 617.38포인트(2.38%) 폭락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719포인트까지 밀렸다. S&P500지수와 나스닥도 2.41%,

미중 관세보복에 세계증시 쇼크

(단위: %, 13일 증가 기준, 아시아는 14일 증가 기준)



3.41% 각각 주저앉았다. 5월 기준으로는 50년 만에 최악의 낙폭으로 기록됐다. 이날 증시 폭락으로 세계 시총은 하루만 새 1조 달러가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맞불은 계속됐다. 그동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6월 말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미국은 2018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관세 부과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 셈이 됐다.

미중 관세 전쟁 확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8.12% 폭등해 2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시장의 영향으로 패닉에 빠졌던 14일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낙폭을 줄였다.

트럼프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매우 성공적인 것"이란 느낌을 갖고 있다"며 "무역협상의 성패 여부를 3~4주 안에 알려 주겠다"고 밝힌 영향이

다. 트럼프가 언급한 '3~4주'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 사이에 물밑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도 긍정의 여지를 두는 '강온양면' 전략을 이어가는 것은 협상이 트럼프가 가진 두 얼굴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은 분석했다.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한편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시장의 동요가 멈추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실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의향을 밝혔다. 신문은 그때까지 시장은 트럼프의 두 얼굴에 끊임없이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영 기자 0jung2@

G2 무역전쟁 확전에 화들짝 시장은 '美 금리인하'에 베팅

연방기금 선물시장 "12월 금리인하 확률 73%"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에 변수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의 54.2%와 10일 64%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중 양국의 관세 폭탄 주고받기가 반영됐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경우,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월슨 투자 전략가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악화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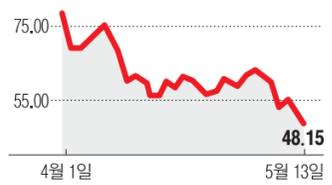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바꿀 근거가 없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까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미국 증시의 S&P500 지수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 위협을 가한 뒤 4.6% 하락했다. 10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긴 아직 이르다'며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맬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말아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지켜보아야 한다"며 "금리는 현재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리프트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우버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우버-리프트, 주가하락 '동병상련'

상장하자마자 고전 '닭은꼴' 스타트업 IPO 시장에 '찬물'

미국의 양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우버)와 리프트가 증시에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였다. 리프트에 이어 우버도 증시 상장 이후 주가 하락으로 고전하면서 올해 뜨거웠던 기업공개(IPO)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우버는 상장 첫날인 10일 주가가 공모가(45달러, 약 5만3420원) 대비 7.6% 내렸다. 상장 이틀째인 이날 하락폭은 10.8%로 더욱 컸다. 이에 우버는 불과 2거래일 만에 주가가 18% 이상 폭락하며 올해 최악의 IPO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프트의 성적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다. 리프트 주가는 이날 5.8% 급락했다. 지난 3월 말 증시 상장 이후 지금까지 리프트 주가는 무려 33% 이상 하락했다.

한마디로 우버와 리프트는 증시에서 '누가 더 못하냐' 치욕스러운 경쟁을 하는 셈이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캐서린 맥카시 기술 애널리

스트는 "우버에 대한 신뢰는 리프트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 리프트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우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IPO를 실시했던 다른 IT 스타트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사의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증시에 데뷔했던 사진 공유 전문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 주가는 IPO 공모가 대비 40% 오른 상태이며 동영상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 줌은 대략 두 배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인기 투자 앱 로빈후드의 닉 마텔 뉴스부문 공동 편집장은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IPO로 모은 자금을 마케팅에 쏟아 붓게 생겼다"며 "복잡(2개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 체제에서 양사는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규모면에서 리프트는 우버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300만 달러 이상을 마케팅에 지출했다. 반면 리프트는 80만 달러에 불과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레노버,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 개발

2020년 출시 목표 '싱크패드 X1' 시제품 공개

중국 레노버가 세계 최초의 접이식 노트북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로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 바람을 일으킨 데 이어 노트북 시장에도 폴더블 시대가 오고 있다.

레노버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례 행사 '레노버 액셀러레이트(Lenovo Accelerate)'에서 '싱크패드' 시리즈 최신형인 세계 최초의 폴더블 노트북 '싱크패드 엑스원(ThinkPad X1)' 시제품을 발표했다. 폴더블 노트북 출시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던 인텔의 전망을 뒤엎은 것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싱크패드 엑스원은 IT 전문가와 기업체 임원, 멀리 어댑터 등을 겨냥한 제품이다. 화면 크기 13.3인치에 접을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2K 해

상도에 화면 비율은 4:3이다. OLED는 LG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운영체제(OS)는 윈도우이며, CPU는 인텔 제품을 채용했지만 어떤 CPU를 탑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접었을 때 크기는 9.6인치로 주머니에도 들어간다. 무게는 정확하지 않지만 2파운드(900g)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노버는 앞으로 폴더블 노트북이 PC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컴퓨터의 서브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은 프리미엄 노트북이 될 것이라는 포부다.

루이스 헤르난데스 레노버 부사장은 "26년간 개발해온 싱크패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신제품은 개발에만 3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 실현한 제품"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연



제 어디서나 펼칠 수 있고, 항상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의 혁신을 일으킨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스크린 문제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싱크패드 엑스원의 내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영 기자 0jung2@



신라금관

고려청자

금속활자

훈민정음

SK하이닉스 반도체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시대를 선도했던 선조들처럼
SK하이닉스도 첨단 반도체로 세상을 이끌어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열정과 도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자격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9.5.1 ~ 2019.7.19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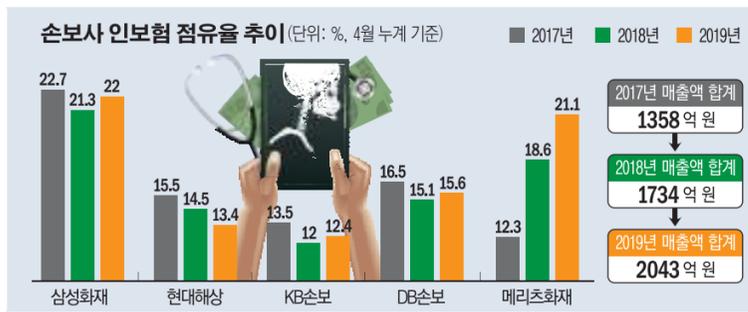
현대해상, 人보험 점유율 3년 연속 나홀로 ‘뚝·뚝·뚝’

현대해상이 손해보험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인(人)보험시장에서 ‘나홀로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이달 ‘효도플랜’을 출시하는 등 뒤늦은 점유율 회복에 나섰다. 단기간 판매 확대에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보험이란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이를 포함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말한다. 현재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보다 손해율이 낮아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가운데 현대해상만 전년 대비 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경쟁 속 선제적 대응 실패 어린이보험까지 1위 자리 빼앗겨 뒤늦게 절판 마케팅 나섰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 우려

메리츠화재가 인보험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주요 손보사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일제히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현대해상을 제외한 손보사들은 회복에 성공했다. 현대해상만 3년째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인보험 시장이 성장할 때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돋보적이었던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 자리를 메리츠화재에 빼앗긴 영향도 크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부터 인보험 강



화 정책을 펼치며 보험법인대리점(GA)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다른 손보사들은 발 빠른 대처로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시책 등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와의 협업을 강화했고, DB손해보험은 올 초부터 설계사 수당 체계를 메리츠화재 식으로 변경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들도 인보험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곧바로 대응책을 준비했고 주춤한 현대해상은 선제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기감을 느낀 현대해상은 이달 들어 ‘효도플랜’을 출시, 대대적인 절판 마케팅에 들어갔다. 실적 채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 플랜은 이달 50-69세 유병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만 판매되는 특판 상품이다. 특판 상품은 통상 단기간 내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점유율 회복을 위한 무리한 영업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경우 점유율 회복이 시급하지만 무리한 판매 확대는 재무건전성 악화나 작성계약(가짜 계약)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인보험 매출은 지난달 누적 기준 2043억 원으로 전년(1734억 원) 대비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17년과 비교했을 때는 50.4% 증가할 만큼 손보사들은 경쟁적으로 인보험 매출을 늘리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5845억 ‘통 큰 투자’

108개 업체, 평균 82억 투입 AI 서비스 도입·확대 ‘최다’

금융권이 올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작업에 평균 82억 원을 투입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17개사·카드 8개사·보험 41개사·증권 42개사 등 금융회사 108곳 가운데 71개사(65.7%)가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이란 고객, 외부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서비스 등을 만들고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총 164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계획으로 잡고, 총

5844억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은행(4004억 원) △보험(1026억 원) △카드(420억 원) △증권(392억 원) 순이다. 사업별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확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37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26건 순이다. 이미 금융사 63개사(58.3%)는 디지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평균 56.4명의 인력을 배치 완료했고, 64개사(59.3%)는 디지털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은 17개사 모두에서 총 48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10건), 영업점 디지털화(9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8건) 등 48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모든 카드사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확대(6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4건)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사 32개(78%)는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확대(20건),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17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10건) 등 69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사 14개(33.3%)는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8건), 영업점 디지털화(5건),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확대(5건) 등 29건에 중점을 뒀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보안·운영·내부통제 리스크 발생이 예상된다”며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유도하고,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감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작년 금융사고 145건·피해액 1289억

인터넷 銀 사칭 신종 사기 출현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1289억 원에 달했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10.5%(17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대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고금액은 1289억 원으로 7.1%(85억 원) 늘었다. 은행권 사고금액은 623억 원으로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발생 규모별로 10억 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의 86.9%를 차지했다. 10억 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약 13%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중대형 금융사고가 83.2%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액 기준 사기(699억 원)가 5년 연속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사

고건수로는 횡령·유용(75건)이 가장 많았다. 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기업(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은행(623억 원)이 가장 규모가 컸고, 전년 대비 규모도 179.4% 급증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 사기와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신종 사기가 출현한 결과다. 신종 사기 중에서는 인터넷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 가입 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 등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51건, 311억 원)과 금융투자(19건, 298억 원), 보험(22건 5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업권은 증권사 배당사(92억 원) 등 1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246억 원, 전년 대비 473%로 크게 증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기업희생 보고서

⑨ 동강시스타

동강(東江)이 꾸불꾸불 지나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지구 일대에 폐광의 유산인 리조트가 올라선다. 이 리조트는 공공기관의 지분이 딱 나뉘어 떨어진 까닭에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버는 돈은 족족 이자 비용으로 쓰다가 1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시와 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동강시스타의 사연이다. 정부의 출자로 탄생한 리조트는 이제는 사기업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이질적인 숙제를 풀어야 한다.



동강시스타 리조트 전경.

정치권에 휘둘렸던 '폐광의 유산' ... 민간 옷 입고 새출발

“민간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0월 18일, 동강시스타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최명서 영월군수에게 선거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전날 최명서 군수가 갑작스럽게 동강시스타의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동강시스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최 군수가 영월군수 후보로 나섰을 때, 동강시스타는 영월지역의 최대 경제 현안이었다. 이미 회생법원에 진입한 동강시스타를 자금 지원으로 살릴 것인지, 민간기업에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후보자들은 분명히 해야 했다. 영월군 주민들의 대부분은 매각을 반대했기 때문에 최 군수를 비롯한 후보들도 선거 공약에 '매각'을 쓰지 않았다.

그런 최 군수가 당선 이후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동강시스타의 회생 계획안에는 콘도회원권(장당 2500만 원 상당) 매입대금 65억 원을 영월군이 매입하는 조건을 담았다. 당시 박선규 영월군수는 배임죄 가능성이 있다며 군 차원의 지원을 주저했을 때, 최 군수는 후보자들과 공동성명을 내 회생 계획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비대위는 더더욱 이런 입장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최 군수가 입장을 바꾼 계기는 영월군만으로는 동강시스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영월군이 인수하기에는 동강시스타의 몸집이 컸고, 콘도회원권 매입은 '배임'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 지원도 국회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동강시스타는 모두가 손을 놔버려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다. 그가 매각을 결정했을 당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지

7년간 순이익 '0'

분양·운영원가 등 매출 웃돌아 은행대출 이자만 매년 8억 육박

정계 진출 코스로 전략

광해관리공·강원랜드·영월군 리조트 지분 각각 20%씩 보유 낙하산 인사에 무방비 노출

민간 매각은 '최선' 아닌 '차악'

매각 지연 땀 파산 가능성 우려 주민 우대 채용 등 혜택도 없어져 SM하이플러스가 265억에 매입 채권 변제 후 회생법원 조기 졸업

원해야 할 정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번도 순이익을 낸 적이 없던 '동강시스타' = 이들의 무관심에도 일리는 있다. 동강시스타는 본격적으로 문을 연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했다. 매출이 없지는 않았지만, 분양·운영원가 등 매출원가는 매년 매출을 웃돌았고 막대한 이자까지 계속 붙어났다. 정부가 출자한 1000억 원의 출자금도 훔당 다 까먹은 상황. 동강시스타는 밑 빠진 독이었다.

2018년 12월, 동강시스타는 몸값 265억 원이 책정돼 SM하이플러스에 매각된

CISTAR

동강시스타 회생 일지

2006. 5	설립
2010. 10	골프장 오픈
2011.	콘도, 스파 등 오픈
2017. 11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8. 10	동강시스타 매각 결정
2018. 12	SM그룹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2019. 3	회생종결



다. 매각을 주저했다간 파산으로 갈 수도 있었다. 동강시스타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했다. 초기 인수금액은 300억 원이 넘었지만, 인수기업이 회원권 일부를 승계함에 따라 금액이 낮아졌다.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회원권 부채는 2027년으로 상환이 뒤로 미뤄졌다. 이듬해 회생 계획안은 조기 종결 처리됐다.

동강시스타는 강원도 영월지역 폐광의 유산이다. 정선군의 강원랜드처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법)이 설립의 근거였다. 영월 주민들에게 동강시스타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다. 과거 광산이 영월군의 밥줄이었던 광산이 문을 닫고 그 지원금으로 세워진 리조트도 광산의 명맥을 잇는다. 동강리조트는 영월군 주민을 우대해 채용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강원랜드 마일리지(쿠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동강시스타는 지역 주민들과 공생한다.

동강시스타가 매각되면, 주민들 처지에선 흑이나 이런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돼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다. 영월군수 입장에서 동강시스타 매각은 최

선이 아닌 '차악'이었다.

◇겉모습은 크게, 자원은 적게? = 7년. 동강시스타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회생법원에 들어가기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기업치고는 망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셈이다. 동강시스타의 미래는 일찍이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실타래가 꼬인 채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동강시스타는 광해방지사업단(39.93%)과 영월군(30.14%), 강원랜드(29.94%)가 동시에 출자해 설립했다. 애초 건립 계획에 짜인 금액의 총액은 1538억 원. 하지만 지금까지 출자된 금액은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는 강원도뿐 아니라 쌍용양회공업,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민간기업까지 총동원한 금액이다.

'1500억 원'짜리 작품을 설계해놓고 500억 원은 스스로 구해야 했다. 밥을 먹게 해 준다면 식만 주고 간 꼴이다.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동강시스타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조달했다. 이 이자는 동강시스타가 빠르게 붕괴하는 데 일조했다. 재무제표에 잡히는 이자 비용만 매년 8억 원에 달했다.

◇정계 진출에 필요한 '한 자리'로 전략 = 특히나 동강시스타는 이상한 지분구조를 가졌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영월군이 각각 20% 언저리의 지분을 들고 있었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가 광해관리공단인 것과 다르게 동강시스타는 주인이 여럿, 그것도 전부 공공기관이었다. 이런 구조는 낙하산 인사에 더욱 취약하다. 윗선의 입김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동강시스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잠시 몸담다가 떠나는 곳에 불과했다.

'손질'은 굉장히 빨랐다. 동강시스타의 지분이 100% SM하이플러스로 이동되자 강원랜드는 쿠폰 지원을 끊어버렸다. 군과 협의 끝에 쿠폰 사용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동강시스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영월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강시스타와의 사업을 묻는 말에 영월군 관계자는 "딱히 없다"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분이 있었을 때는 제 것처럼 부렸지만 떠나고 나니 남처럼 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SM하이플러스는 영월군, 강원랜드 등의 협조를 통해 영월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리조트를 약속했다. '시와 별'이란 뜻인 '시스타'는 직관적인 이름인 '리조트'로 변경된다. 앞으로 손님을 맞이할 새 이름은 SM그룹 탑스텐 동강리조트이다.

이제 동강시스타는 민간기업이다. 그렇다고 수익에만 매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립 취지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과제는 앞으로 동강시스타가 이름을 바꾸며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숙제로 남았다. 글·사진·곽찬신 기자 jinsan@

“리조트-지자체-주민, 전략적 협업으로 정상화 이끌 것”

김성원 동강시스타 대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지어야 했다. 공기업 구조가 다 비슷하다. 자회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했다.”

김성원(사진) SM그룹 동강시스타 대표는 11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시스타 본사 회의실에서 본지와 만나 '동강시스타'가 법정관리로 향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대표는 동강시스타가 회생을 종결한 직후 부임했다. 그에게 주

“공기업 운영 체질과 많이 달라 사업 잘 아는 사람이 이끌었어야 셔틀버스 운영해 접근성 개선 겨울고객 유치 위해 리모델링도”



어진 첫 번째 임무는 동강시스타의 경영 정상화다.

김 대표는 “전부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동강시스타는) 구조로 보면 수익이 날 수 없는 데다 누적 적자가 심해졌다”라며 “사기업이 인수하면 정상화하는 게 1차 과제다. 공기업 운영 체질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판단하기에 동강시스타는 매각이 불가피했다. 그는 “공기업 자회사가 적자인 이유는 안일하게 경영하기 때문이다. 내려오신 분들이 리조트보다는 정치하던 분들이다.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것

을 바꿔볼 계획이다. 모범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현재 동강시스타의 인건비 구조는 40%가 넘는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직원을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SM그룹에서는 계열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양소 개념으로도 생각한 것이다. 이왕이면 적자 수준은 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3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설명했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 골프장을 살린 경험이 있다.

김 대표는 “리조트는 지자체와 주민,

이해관계자가 같이 전략적으로 협업해야 성공한다. 그동안 동강시스타는 협업이 잘 안 됐다”며 “영월은 지리적인 조건이 많이 불리하다. 이걸 개선하는 건 어렵기에 셔틀버스를 운영해 여기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적자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그는 “스파는 200억 원 주고 가동하고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다. 손님이 없으면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한철 장사가 아니라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동강시스타가 이런 좋은 경지를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게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곽찬신 기자 jinsan@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정의선, 제로백 1.85초 '괴물' 전기차 손잡았다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마테 리막 리막 CEO가 13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Zagreb)에 위치한 리막 본사에서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리막의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C-Two. 사진제공 현대차·오토프레스UK

현대차, 리막에 1000억 투자 페라리 꺾은 1888마력 기술로 'N브랜드' 콘셉트 전기차 제작 친환경·고성능 '두 토끼' 잡기 "클럽 모빌리티 최고 파트너"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고성능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친환경과 고성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일단 대규모 투자 단행을 통해 그룹 내 운신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고성능 전기차 전문기업 리막에 약 1000억 원 투자를 단행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Zagreb)에 자리한 리막 본사에서 체결식을 하고 양사의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리막은 현대·기아차의 '클럽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와도 프로

젝트 경험이 풍부해 당사와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리막의 마테 리막(Mate Rimac)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차그룹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력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협력으로 3사는 물론 고객에 대한 가치 극대화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막에 대한 투자는 현대차 6400만 유로(약 854억 원), 기아차 1600만 유로(약 213억 원) 등 총 8000만 유로(약 1067억 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2020년 고성능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선행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리막은 2009년 설립한 전기차 전문기업이다. 짧은 역사 가운데 고성능 전기차 기술에서 독보적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리막이 개발한 수소전기차 콘셉트 'C-One'는 400m 단거리 경주에서 V12 6.3리터 최고출력 800마력을 자랑하는 페라리의 '라페라리'를 가볍게 추월해 큰 관심을 모았다. 후속 모델인 C-Two 역시

최고출력이 무려 1888마력에 달한다. 단 1.85초 만에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가속까지 놀라운 고성능을 자랑한다.

그동안 리막은 탄탄한 전기차 관련 기술을 앞세워 △에스탄마틴 △피네파리나 등 글로벌 유수의 고성능차 브랜드와 공동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세 역시 리막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지난해에는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관심을 내비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리막과 협력해 내년까지 N브랜드의 미드십 스포츠 콘셉트카의 전기차 버전과 별도의 수소전기차 모델을 2개 차종에 대한 고성능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양산 검토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 수소전기차 시대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Grab)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 3월에는 인도 1위 카헤일링 기업 올라(Ola)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에쓰오일, 이틀 일하고 이틀 쉬까

다음 달 17일부터 4조2교대 정유화학업계 첫 시범 실시 2~3일 근무·휴무 형태 유력

에쓰오일(S-oil)이 다음 달 17일부터 4조 2교대 근무제 시범 실시에 나선다.

정유·화학사 공장에 4조 2교대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산업 특성상 정유·화학 업계는 4조 3교대 근무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14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4조 2교대를 시범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며 "몇 개 부서를 시행할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항 역시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무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4조 2교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나 유한킴벌리의 사례처럼 이틀 혹은 사흘 동안 근무한 뒤에 근무일만큼의 휴식을 취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조 2교대 근무 전환을 위해 구성

된 에쓰오일 태스크포스팀(TFT)은 이들 회사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올해 초 포스코와 유한킴벌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1988년 가장 먼저 4조 2교대 근무를 시작한 제조업체로 하루 12시간씩 주간 혹은 야간에 사흘을 일하고, 사흘을 쉬는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주간에 이틀 일한 후 이틀을 쉬고, 야간에 이틀 일하고 다음 이틀은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에쓰오일의 4조 2교대 도입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존 4조 3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 반년간 시범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4조 2교대는 4개의 작업조 중 2개 조가 각각 주간, 야간에 일하고 나머지는 쉬는 방식이다. 기존 4조 3교대와 비교했을 때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쉬는 날이 1년에 80일 이상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두산, 물류센터 자동화 사업 진출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설립 설비·프로그램 턴키 서비스

두산이 물류 센터 내 제품 입고부터 이동, 저장, 반출까지 전 과정을 제어·관리하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두산은 최근 통합 물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Doosan Logistics Solutions)을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전 과정을 제어·관리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해 턴키(turnkey)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커머스(e-Commerce) 및 중대형 물류 창고 운영 업체가 주요 고객이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두산의 기존 사업인 산업차량(지게차), 협동로봇, 드론용 연료전지 등 핵심 역량과 접목해 자율주행 지게차, 물류용 협동로봇 및 드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물류 시스템 간 통합(SI)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현수 두산 부회장은 "물류 자동화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이제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다"며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두산의 기존 핵심 역량을 결합해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을 국내 최고의 토탈 물류솔루션 제공자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책임자 파리에 떴다



손영권 사장, 유망 벤처 찾아 프랑스 '비바테크놀로지' 참가 자율주행·AI 업체 발굴 주목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과 핵심 수뇌부들이 프랑스 파리를 찾아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를 책임지는 삼성기탈리스트펀드와 삼성벤처투자가 16~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에 참가한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비바테크는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

들이 한데 모여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프랑스 최대의 국제 스타트업 행사다.

삼성엔 비바테크에 부스를 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스타트업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스타트업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손영권 삼성전자 최고전략책임자(CSO) 사장이 '목적'을 가진 기술로 미래를 열어나(Powering the Future with Purposeful Technology)'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손 사장은 삼성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삼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다. 손 사장과 삼성 투자 핵심 수뇌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 4차 산업 관련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삼성엔 비바테크를 통해 새롭게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VC)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스타트업도 참가해 글로벌 기업 및 VC의 구애를 기다린다. 코트라(KOTRA)와 창업진흥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는데, 유망 스타트업 21개사가 참가한다.

참가 기업 중에는 인공지능 금융 플랫폼 아카버스를 제공하는 '에이젠글로벌', 인체의 혈관과 장기 조직을 체외 모사해 혈관을 통한 약물 반응을 평가하는 인체 장기 칩 기술 보유 기업 '큐리오칩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과라소프트', 측정한 신체 데이터에 기반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소프터다임' 등이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차, 차세대 SUV 방향성 공개

'하이클래스 소형 SUV' 렌더링 젊은 디자인 무장...하반기 출격

기아차는 올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인도와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인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첫 번째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4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는 지난해 인도 델리에서 열린 '2018 델리 오토 엑스포'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소형 SUV 'SP 콘셉트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차의 새 글로벌 소형 SUV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했다.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전 소형 SUV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즐겁고 편안한 주행 성능 및 탁월한 공간감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3월 서울모터쇼에서 신규 글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 SUV' 렌더링(위)과 3월 서울모터쇼서 선보인 콘셉트카 'SP시그니처'.

로블 소형 SUV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콘셉트카 'SP 시그니처(Signature)'를 공개해 본격적 신차 출시 전부터 고객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공기질 통합관리 서비스

삼성전자는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서비스인 '스마트싱스 에어(SmartThings Air)'를 14일 새롭게 내놨다. 최근 각 가정에서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고 사용하는 트렌드를 고려한 서비스다.

'스마트싱스 에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스마트싱스 앱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삼성 공기청정기 모델과 연동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안방·거실·아이방 등 각 공간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센서로 측정된 실내 공기 오염도와 실외 공기질·예측 정보까지 조합해 실시간으로 실내외 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상황별로 최적의 공기질 관리법을 추천해 준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감지되면, 자연 환기를 먼저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제안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1921년 6월 프랑스 '한우친우회'결성식 연설

임시정부 최초의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퍼트렸던 황기환 선생

영어와 프랑스어로 쓰인 잡지,
'자유한국'을 발간해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유럽의 각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강제 귀국 위기에 처한 해외 동포들을
유럽 곳곳으로 이주시켰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 - 1923. 4. 19 **황기환 선생**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
1904년 10대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진 황기환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제안을 받아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권리를 알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는 미국에서 순국, 뉴욕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자료제공처 : 독립기념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국내 폴더블 디스플레이 선점 경쟁 막 오른다



**투명 PI필름 시장 팽창 앞두고
코오롱 “양산 설비 먼저 갖춰”
SKC, 10월 상업 생산 목표
“SK이노와 경쟁·협업 가능”**

차세대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PI) 필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유일한 양산 체제’를 무기로 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기술과 연속 공정의 이점·SK이노베이션과의 연합 가능성’을 앞세운 SKC가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13일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투명PI(상표명 CPI)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회사에 전부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두 달 안에 폴더블폰이 출시되는데, 비밀유지협약(NDA)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양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우리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출시를 앞둔 폴더블폰에

타재 여부를 확실하지 않았지만 양산 설비를 유일하게 갖췄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투명 PI 시장의 경쟁자인 SKC, SK이노베이션과의 경쟁에서 수개월의 격차가 있다고 자평하며 견제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경쟁사의) 양산 라인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양산 라인에서 나오는 샘플로 테스트를 거치고 수많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서 탑재를 결정짓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선 완공되고 해도 실질적으로 양산 제품으로 경쟁하기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후발주자인 SKC는 투명 PI 생산을 위한 연속 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일한 시장에 뛰어들 그룹사 SK이노베이션과의 협업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SKC는 SKC하이테크엔마케팅과 함께 10월 상업 생산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투명 PI 설비를 건설 중이다.

SKC 관계자는 10일 열린 IR에서 “최근 투명 PI에 하드코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보호필름도 채택하고 있다”면서 “투명 PI 원단부터 하드코팅, 보호필름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는 정상적으로 준비돼서 9월 입고돼서 10월 시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C는 양산 전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주요 스마트폰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수의 폴더블폰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특수 의류, 항공 등 다양한 회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상당한 협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SKC는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충북 투자 우려도 있으나 우리는 같은 그룹에 있으니 소통할 기회도 있고 경우에 따라 협업할 수도 있는 여러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 PI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FCW)’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투명 PI 시장에 진출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A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주요 시장인 글로벌 폴더블폰 예상 판매량은 2022년 501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에서부터 TV, 자동차, 가상현실(VR) 등으로 용도 및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내 투명PI 생산시설 현황

업체	생산시설	투자 금액	완공 시기
코오롱인더스트리	경북 구미	900억 원	2018년 3월
SKC	충북 진천	850억 원	2019년 10월 예정
SK이노베이션	충북 증평	400억 원	2019년 10월 예정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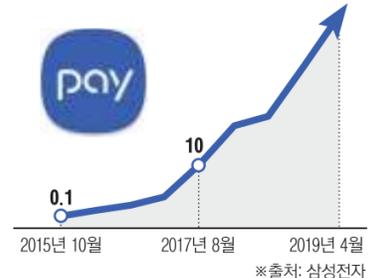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궤도 탄’ 삼성페이 40조 결제

44개월 만에 가입자 1400만 명
오프라인 간편결제액 80% 차지
총 결제액 4분의 1 온라인서 클릭

삼성페이 누적 결제금액
(단위: 조 원)



삼성전자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삼성페이’가 누적결제 금액 4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출시 44개월 만에 국내 누적결제 금액 40조 원, 가입자 수 1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 페이는 출시 12개월 만에 누적결제 금액 2조 원, 24개월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33개월과 39개월에는 각각 20조 원과 30조 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페이는 2018년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 사용도 꾸준히 증가해 삼성페이 전체 결제 금액 중 약 25%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삼성 페이는 해외 송금, 선불카드, 쇼핑, 교통카드, 멤버십, 입출금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선보이며 사용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를 출시한다.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는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환전 신청 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외환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미화, 엔화, 유로화 등 총 15종의 통화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6월 12일까지 삼성페이 내 환전 서비스 이용 시 첫 1회에 한해 주요 통화 100% 환율 우대, 우리은행 비대면 계좌와 체크카드 개설 시 무료 여행자 보험가입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 ‘V50 씽큐’ 옥외광고 시동

LG전자가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LG전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LG V50 씽큐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사진)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광고탑은 약 40m 높이로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람객에게 LG V50 씽큐 광고를 한눈에 전달한다.

‘놀라운 5G, 듀얼로 제대로’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고객이 LG V50 씽큐와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음을 표현했다.

LG전자는 이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용산전자랜드 등에서도 LG V50 씽큐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이달 초부터는 쇼핑, 영상통화, 게임 등 LG 듀얼 스크린의 다양한 활용법을 담은 디지털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문 대통령 “중소, 4차 산업혁명 주역 되도록 돕겠다”

2019 중소기업인 대회 개막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축제인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14일 개막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을 기념해 중소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는 행사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시작했다. 2013년까지는 '전국중소기업인대회'이었으나 201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에게 상을 수여했다. 포상 규모는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3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

리 표창 32점, 장·차관급 표창 288점 등 총 379점이다.

이번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근길 서한안타민 대표이사, 이승지 에스앤비 대표이사 등 모범 중소기업인 5명에 대한 포상 친수와 함께 축사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중소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 8개 부분의 실천 강령을 담은 '중소기업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그러나

제가 만난 모든 중소기업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말이 육성책이 발



박영선(앞줄 왼쪽부터) 중기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이 14일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행사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문 대통령은 "최근 연말이 육성책이 발

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 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 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 지원으로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 출범 이후 다양한 성과를 끌어내고 있는데도 최근 세계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해외 진출, 스마트 공장 등 중소기업의 도전정신을 결합해 함께 잘 사는 나라, 튼튼한 선진국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의 시대에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텔레콤, 5G로 골프대회 생중계

골프장 곳곳 무선중계장비 설치 중계차 등 복잡한 설비 필요없어 재난보도 등 다양한 분야 활용



SK텔레콤 홍보모델들이 5G를 통해 'SK텔레콤 오픈 2019' 골프대회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이 5G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 골프 중계에 나선다. 5G 무선 중계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중계차나 선 없이 방송을 중계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추후 지상파와 협력해 뉴스 같은 다양한 방송으로 5G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중구 SKY 72 골프앤리조트 하늘코스에서 개최되는 'SK텔레콤 오픈 2019'에서 5G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골프 생중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JTBC와의 협업을 통해 5G 상용망을 활용한 TV 스포츠 생중계를 추진한다. 또 옥수수(oksusu)를 통해 별도 자막 및 해설이 제공되는 '5GX 전용홀 중계'도 시작한다.

SK텔레콤은 SKY 72 골프장의 3번, 4번, 9번 홀을 '5GX 전용홀'로 지정하고, 5G 무선 중계 설비를 구축했다. 소형 5G 모델과 연결된 ENG 카메라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촬영, 5G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JTBC골프 채널로 송출해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스포츠

중계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골프 중계는 촬영 영상을 각 홀에 구축된 유선 케이블을 통해 현장에 있는 중계차로 보낸다. 이를 다시 중계차에서 방송국 주·부조정실로 송출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5G 골프 생중계는 무선 모델과 연결된 카메라에서 임시 조정실로 영상을 직접 송출해 옥수수로 방송한다. 중계 현장에 카메라를 위한 복잡한 선과 중계차 설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5G 상용망이 스포츠 중계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용량·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의 5G를 생중계에 활용하면

각종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골프와 마라톤 같은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중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추후 5G 무선 네트워크 중계를 스포츠에 이어 뉴스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범근 SK텔레콤 5GX미디어사업그룹장은 "5G 생중계는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포츠뿐 아니라 긴급 재난현장 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여러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5G 기술로 방송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혼수품도 렌탈 시대 뜨는 품목 '안마의자'

예비부부 66% "렌탈 방식 선호" 안마의자, 혼수 트렌드 품목 6위



최근 혼수품을 렌탈로 마련하려는 신혼 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비용 부담이 큰 '안마의자'가 주요 렌탈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렌드는 국내 한 웨딩 컨설팅 업체가 예비 부부 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수 트렌드 조사를 인용해 10명 가운데 8명 이상(85.4%)이 혼수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체의 66.2%가 혼수품의 '렌탈' 방식을 선호했다.

품목 조사에서 안마의자는 TV와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제외한 위시 혼수품에서 1순위(21.3%)에 꼽혔다. '라텍스 침대'(17.0%)와 '정수기'(11.5%), '리클라이너'(9.7%) 등이 뒤를 이었다.

바디프렌드는 매년 결혼식이 많은 3~5월, 9~11월 예비 부부의 안마의자 렌탈, 구매 문의는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전했다. 바디프렌드는 백화점이 실시한 혼수품 트렌드 조사에서도 2007년 당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안마의자가 2017년에는 6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말, 휴일을 제

외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낮은 과시용 품목보다 힐링과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혼수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

특히 안마의자에 수면, 소화를 비롯해 두뇌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브레인 마사지(Brain massage)'와 같이 실질적으로 건강 증진에 유용한 기능들도 적용되는 추세다.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과거의 형식에 맞는 방식과 달리 이제는 필요에 따라 품목 수는 줄이고 꼭 필요한 제품에 돈을 쓰면서 실수를 행하는 방향으로 혼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특히 연중 결혼식이 가장 많은 3~5월은 전국 직영 전시장과 백화점 매장에 안마의자 구매 상담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현대리바트, 업계 첫 '홈스타일링' 서비스

美윌리엄스 소노마 홈퍼니싱 3개 브랜드 통해 서비스 제공

현대리바트가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맞춤형 프리미엄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홈스타일링은 인테리어 공사 없이, 가구와 커튼·쿠션 같은 소품만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14일 현대리바트는 미국 프리미엄 홈퍼니싱 기업 윌리엄스 소노마(WSI)의 포터리반·포터리반 키즈·웨스트 엘름 등 3개 브랜드 매장에 홈스타일링 컨설턴트 '디자인 크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크루'는 일종의 홈스타일링 퍼스널 쇼퍼(개인 쇼핑 도우미)다. 현재 윌

리엄스 소노마가 진출한 미국·영국·호주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은 매장에서 고객과 선호하는 색상·스타일, 꾸미고 싶은 공간에 대해 상담한 뒤, 홈스타일링 제안서를 작성해 1~2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한다. 제안서에는 고객의 예산과 취향에 맞춰 꾸민 가구·소품 리스트뿐 아니라 가구 배치 평면도, 가구와 소품이 배치된 홈스타일링 예시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때는 고객 집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도 진행한다.

기존 가구·건자재 업계에서 주방가구·창

호·벽지 등 실측과 설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설치가 필요 없는 가구와 소품들을 활용한 홈스타일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국내 가구업계에서 처음이다.

현대리바트는 WSI 플래그십 스토어는 현점·광주점, 포터리반 울산점, 포터리반 키즈 대전점, 웨스트 엘름 분당점 등 5개 매장에 우선 도입해 운영한 뒤, 올 연말까지 전국 9개 매장으로 확대한다.

이번 '디자인 크루' 도입은 현대리바트가 펼치고 있는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올 들어 세라믹 타일을 활용한 식탁과 주방가구를 연이어 출시하며 제품 고급화에 나선 데 이어,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부·소진공 '청년상인 페스티벌' 개최

17~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제1회 전국 청년 상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상인들이 상품, 서비스, 기술 등 다양한 교류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드는 '전국 청년 상인 네트워크'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탬프 투어 △회식 이벤트 △일회용품 줄이기 이벤트 △한정판 상품

이벤트 등이 열린다.

개막식 전후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야외 행사장에서는 청년 상인들이 '청춘 모꼬지장'을 통해 지역 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및 체험행사 등을 연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앞으로 매년 청년 상인과 특성화 시장이 한 곳에 모이는 대표적 전통시장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전통시장 변화의 중심에 있는 청년 상인과 특성화 시장을 제대로 알리고,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아동 동반 가족고객 모십니다” ‘키즈 마케팅’ 공들이는 백화점

현대백 천호점 업계 최초로 한 층 통째로 키즈 패밀리관 롯데 영등포점, 용품 체험존 신세계, 키즈카페 운영 확대 불황에도 유아동 매출 증가 가족 단위 ‘VIB족’ 집객 기대



현대백화점 천호점 아동관 모습.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수록 유아동을 겨냥한 마케팅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최근 한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족이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해 유아동 물품 체험존, 키즈카페 등을 백화점 내에 들이는 등 ‘키즈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화점이 단순히 유아동 의류·용품 판매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단위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모양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유아 휴게실 내에 유아용품 브랜드 뉴나(NUNA) 체험존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서 백화점 방문 고객들은 뉴나의 아기 식탁 의자 ‘짜즈’를 비롯해 아기 침대 ‘세나 에어’, 바운서 ‘리프 커브’를 체험해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안산점은 지난해 12월 새 단장 후 문을 열어 백화점의 기존 공식을 버리고 유아동 매장을 2층에 들었다. 일반적으로 유아동 매장은 고층부에 구성한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김포공항점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5번째로 ‘슈라기월

드 특별전’을 열어 가족 단위 고객 끌어들이기 마케팅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월 천호점 새 단장 오픈에 맞춰 8층 전체에 ‘키즈&패밀리관’을 구성했다. 백화점 업계에서 한 개층 전체를 유아동 관련 콘텐츠만으로 꾸민 것은 천호점이 처음이다. 아울러 천호점 내 유아 이음식 및 성인용 건강식을 함께 판매하는 패밀리맞춤형 카페 ‘얍이밀’, 청담동 키즈카페로 유명한 ‘릴리펫’ 등을 들었다. 현대백화점은 상품 구성 차별화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강남점을 시작으로, 의정부점, 대구점에 ‘리틀랜드’라는 키즈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백화점이 유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 모으기에 공들이는 이유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의 유아동 부문 매출 신장률은 2016년 8.1%에서 2017년 10.2%, 2018년 12.9%로 지속해서 성장하

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유아동 부문 매출 신장률 역시 2016년 10.2%에서 2017년 19.2%로 뛰었고,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지난해 9월에는 전년 대비 18.9% 매출이 성장했다.

이들이 유통업계 큰손으로 떠오르자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는 추세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4개 점포는 업계 처음으로 카트 소독기와 유사한 형태의 ‘램프형 유모차 살균 소독기’를 매장 내 별도로 설치했다. 또 롯데백화점은 2016년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개선하며 고급형인 디럭스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틴포켓족’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아동 브랜드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구매력이 큰 시니어 층도 모바일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60대 이상 고객의 유아동복 상품군 신장률은 매년 20%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국 노리는 유럽 국민음료

스위스 리벨라·스페인 카카오랏 이어 네덜란드 씨씨 출시
지난해 국내 음료시장 8.1兆 3.7%↑... 해외기업 주목



‘리벨라, 카카오랏에 이어 씨씨..’ 유럽 국민 음료들이 앞다퉈 한국 시장에 상륙하고 있다.

스위스인 95%가 즐기는 국민음료 ‘리벨라’가 2016년 한국에 첫 진출한 이후, 2017년 롯데마트가 스페인 국민음료인 ‘카카오랏’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부터 네덜란드 국민음료인 ‘씨씨’도 한국 음료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이처럼 유럽 대표 음료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배경에는 한국 음료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한몫했다.

14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음료 시장은 지난해 기준 68억5860만 달러(약 8조1392억 원)로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했다. 또 한국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거듭났다. 한국 시장에서 음료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리벨라는 우유를 만들고 남은 유청(ractoserum)으로 만든 스위스 대표 음료수로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들도 섭취할 수 있는 음료다. 과일 맛, 녹차맛, 저칼로리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스위스 전 국민의 95%가 매일 마시는 음료로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가 수입음료 시장확대를 위해 선보인 카카오랏은 2월 국내에 공식 론칭하며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식 론칭을 통해 카카오랏은 대형

마트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랏’은 1933년부터 생산된 스페인 음료로 세계 최초의 밀크셰이크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네이밍처럼 카카오 열매를 사용한 무지방 코코아와 천연 향료, 우유로 만든 제품으로 유럽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했다.

네덜란드의 국민음료로 통하는 ‘씨씨(SiSi)’도 이달부터 한국 소비자와 만난다. 씨씨는 네덜란드인들이 유일하게 즐겨 마시는 저탄산음료로 80년 역사를 지닌 장수 브랜드다. 씨씨를 생산하는 ‘브루모나’는 맥주로 유명한 ‘하이네켄’의 자회사다. 다른 청량음료나 과일음료 대비 1/3 정도로 칼로리가 낮은 씨씨는 초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음료로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받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씨씨 관계자는 “씨씨는 현대인들에게 밝음, 활기, 낭만을 선사해주는 친구 같은 음료 브랜드로, 네덜란드인과 80년 이상을 함께해온 명실상부한 국민 음료”라며 “최근 한국에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시장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현 기자 yhh1209@

‘1~2인 가구’ 확산... 수박 크기 작아졌다

롯데마트 중과종 ‘베개 수박’... 신세계백 굴비 묶음 14마리로 줄여



찌지 않아도 달콤한 초당옥수수

롯데백화점이 14일부터 수도권 전 점포에서 찌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초당옥수수를 개당 2000원에 판매한다. 올해 처음 수확한 경남 의령의 초당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분 함유량이 20~30%가량 높아 ‘초당(超糖, Super Sweet)’으로 불릴 만큼 달며, 과육이 단단하지 않고 수분이 많아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을 지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롯데마트 중과종 ‘베개 수박’. 사진제공 롯데쇼핑

2인·3인 등 소가구가 늘면서 유통업계의 포장 공식이 달라졌다. 기존 4인 가구에 맞춰 판매되던 상품을 소량씩 나눠 판매하는 식이다.

롯데마트가 1~2인 가구를 위한 수박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소과종 수박인 ‘애플 수박’을 필두로 3~5kg 내외의 중과종 수박 판매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중과종 수박은 ‘베개 수박’과 ‘블랙보스 수박’이다. 모양이 베개처럼 길쭉하게 생긴 베개 수박은 4~5kg의 중과종 수박으로, 겉표면은 흑색 호피 무늬를 띠고 속은 붉으며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16일부터 경남 함안에서 수확한 베개 수박을 9900원에 판매한다.

‘망고 수박’으로 불리는 블랙 보스 수박은 2~3kg 정도의 크기로 타원 형태를 띤다. 겉은 일반 수박보다 진한 초록색이고, 과육은 노란색인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만1900원이다.

롯데마트는 3~5kg 내외의 중과종 수박을 지속적으로 확대 판매해 향후 전체 수박의 매출 중 30% 이상을 중과종 수박으로 키울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도 굴비 20마리를 묶어 판매하던 고유명사인 ‘두름’ 대신 14마리를 묶은 ‘1억음’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17일부터 사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굴비 한 세트를 의미하는 ‘두름’은 조기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으로 4인 이상의 식구가 한 끼에 3~4마리씩, 최대 두 달

에 걸쳐 소비하는 양이다.

신세계는 밀레니얼 가족도 두 달 내에 맛있게 굴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14미(1억음) 외 10미 등으로 굴비 수량을 조정해 굴비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1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서 ‘신세계 핫굴비 대전’을 연다. 봄굴비 1호 13만7000원(1.5kg·14미·정상가 19만6000원), 참굴비 3호 5만6000원(1.2kg·14미·정상가 9만4000원) 등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핫굴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 김선진 상무는 “2·3인 등 세분화한 가족 구성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맞춤형 상품을 더욱 많이 기획해 산지와의 상생은 물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테라’ 깜짝 돌풍... “공급 지연 죄송합니다”

하이트진로, 도매사에 안내문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가 14일 전국 주류도매사에 신제품 ‘테라’의 공급 지연 및 조기 정상화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청정라거 테라가 예상수요를 크게 뛰어넘었다. 일부 품목의 물량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주문이

테라의 판매량은 지난 3월 21일 출시 후 50일 만에 130만 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의 맥주 신제품 중 출시 초기 최대 판매기록으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이다.

이같은 테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하이트진로는 출시 보름만에 전체 판매 목표를 조정하고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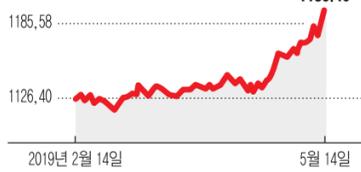
생맥주 등 제품군의 출시 일정을 6월로 조정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호주의 골든드라이앵글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만을 원료로 해 생산한다”면서 “예상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인기로 인해 원료 조달이 다소 늦어져 일부 품목의 공급이 지연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 공급은 다음 주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치솟는 환율 커지는 外人 이탈 우려

G2 분쟁 영향 환율 연일 고점 경신
코스피 YTD 수익률 마이너스 기록
外人 거래비중 25%대로 낮아져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원)



원화 가치가 연일 떨어지고 있다. 호주 달러, 대만달러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격화의 최대 피해 통화로 인식될 정도다. 문제는 가파른 원화 약세가 한국 증시 수급에 경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증가 1187.5원 보다 1.9원 오른 1189.4원에 마감했다. 2017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130~114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년 9개월 만에 1150원 선을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9일과 13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10원 넘게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양국의 관세 전쟁 속에

두 나라를 양대 수출국으로 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G2 간 갈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원화는 위안화 약세에도 연동돼 있어 원·달러 환율 상단을 1210원 부근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 외국인들은 환율이 급등할 경우 원화 표시 자산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국내 주식, 채권 등을 처분한다. 그런데 최근 달러 환산 코스피지수 YTD(연환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조 원이 넘는 외국인 유입자금 중 4조4000억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등 증시 전반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수급에 더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외국인 거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달 외국인은 2조 8000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지만 거래비중은 25.7%로 낮았다"며 "외국인의 거래 비중 감소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가 14일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통해 2년 내 흑자 달성”

한국포스증권, 공모펀드 중심
개방형 온라인 사모펀드 구축
IRP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제공

온라인 펀드판매 증권회사인 한국포스증권이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만성적 적자 문제는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는 14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명을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한국포스증권으로 변경하고 공모펀드 판매 중심이었던 비즈니스를 지속 확장해 펀드에 관련된 모든 고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해 말 한국증권금융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3월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한국포스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 대표는 한국포스(FOSS)증권 사명에 '생활금융투자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1세대 오프라인 거래, 2세대 HTS, 3세대 모바일 주식거래 시대를 거쳐 모바일 자산관리 시대인 제4세대 증권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해 영업손실 61억

원을 기록해 전년(-67억 원)에 이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모펀드 중심의 판매 채널을 유지한 것이 실적 부담이 됐다. 이에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2년 내로 흑자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신 대표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자가 해소돼 내후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을 확신한다"며 "고객이 펀드 투자에 느끼는 불편함과 고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펀드) 잔고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온라인 사모펀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사모펀드는 높은 투자비용 등 장벽 탓에 일부 대형 자산 운용사 위주로 운용돼왔지만 온라인 사모펀드 플랫폼이 신설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투자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신 대표의 생각이다.

퇴직연금 펀드(IRP)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연내 퇴직연금 관련 인허가를 받고 온라인에 '연금자산관리센터'를 개설해 IRP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산관리 전문인력 11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담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상품 클래스를 확대해 상품군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코오롱티슈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바뀌면...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감사의견을 '비적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회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은 1년의 개선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거나 다음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

된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서 의견 수정에 들어간 감사보고서가 2017~2018년 2년치다. 회사가 2년 전부터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감사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2009년 4월 7일 코스닥에 입성했다.

두 회사는 당장 이번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인보사 이슈를 반영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이 분기보고서 공시 마감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해외기업

으로 29일이 시한이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으면 분기보고서에도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한다.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비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지금까지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번복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기간 내에 적정의견으로 수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석회계가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 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이주혜 기자 winjh@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웹툰 업계 최초 상장... 만화 저작권 최다 보유

기업탐방

미스터블루

웹툰 원작 영화·게임 등 제작 활발
올 1분기 매출 79억 전년비 17% ↑
2024년 회원수 1000만명 돌파 목표
자회사 통한 신규 게임 출시도 앞두고



웹툰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방송, 출판, 광고, 캐릭터 라이선스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미스터블루는 웹툰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1세대 기업이다. 미스터블루는 디지털 만화 및 웹툰, 웹소설, 게임 전문 콘텐츠 등 온라인 콘텐츠 공급업체다. 포괄적 저작권 및 배타적 발행권 등을 취득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2차 저작물로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 제작 및 유통, 수출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미안마와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통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를 통한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블루포션게임즈는 미스터블루 게임사업 부문을 몰적 분할해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모바일 정통 MMORPG '에오스 레드(EOS RED)'를 3분기 론칭할 예정이다. 블루포션게임즈는 2016년 엔비어스사의 온라인게임 에오스(EOS)를 45억 원에 인수해 지난해부터 서비스 중이다. 대만키아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와의 라인 퍼블리싱 계약도 체결한 상태. 올해 모바일 버전 출시를 통해 다변화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조승진 대표는 "게임 콘텐츠들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8월 상용화를 목표로 에오스 모바일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귀뚜라미홈시스, 작년 3647만원 벌고 판관비에 '10억' 썼다

매출 2015년 이후 하향세 불구
오너일가 연봉 1.3억씩 쟁거
매년 수십억 영업손실 발생

	2017년	2018년
매출액	1억1192만 원	3647만 원
영업손실	11억179만 원	10억681만 원
판관비	12억445만 원	10억3776만 원
판관비 중 급여	6억131만 원	5억3651만 원
임직원 수	4명	4명

*출처 : 금융원 전자공시시스템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귀뚜라미홈시스가 수년간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 판관비(판매관리비)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관비 중 급여 항목에서 대거 지출이 발생하면서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귀뚜라미홈시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3647만 원, 영업손실 10억 681만 원을 기록했다. 귀뚜라미홈시스의 매출액은 △2015년 36억135만 원 △2016년 8억453만 원 △2017년 1억1192만 원으로 줄곧 하향세를 걸어왔다. 매출 규모가 줄면서 수익성도 악화돼 매년 수십억 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매출이 줄고 적자가 지속되면 판관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귀뚜라미홈시스는 매년 높은 판관비 지출로 영업손실을 더욱 키웠다. 지난해 기준 귀뚜라미홈시스는 총 10억3776만 원의 판관비를 지출했다. 매출액 3647만 원과 비교했을 때 판관비 지출 규모는 28배가량 높은 수치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판관비는 급여와 퇴직급여, 접대비 등을 포함하는 지출 내역으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상 영업이익으로 분류한다. 매출액이 미미한 귀뚜라미홈시스는 판관비 지출이 고스란히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판관비 중에서도 급여 항목에서 과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판관비 중 급여 항목 지출금액은 판관비의 절반가량인 5억3651만 원이다. 회사 임직원이 4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억3400만 원씩을 가져간 셈이다. 귀뚜라미홈시스는 최진민 귀뚜라미비올러 회장과 송경석 귀뚜라미 대표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최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귀뚜라미 전무와 부인인 김미혜 씨가 공동으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오너일가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연봉을 쟁기고 있는 셈이다.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발생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변종섭 대표, 이번엔 11억 수수료 의혹

검 조사에서 "와이디온라인 매각과정서 받았다" 증언 나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변종섭 와이디온라인 대표가 클라우드매직이 미래에셋PE(시나안)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당시 1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쟁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래에셋PE, 클라우드매직, 와이디온라인 등 3곳이 수수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거래 배경과 함께 회사에서 사라진 10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디온라인 매각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환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변 대표는 회사 인수 당시 와이디온라인에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에셋PE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인 시나안과 와이디온라인 매각 교섭을 하는 등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피의자는 변 대표가 거래 당시 클라우드매직에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인수하면 일정 기간 후에 전량 되사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대표는 거래의 수수료를 쟁기며 밀을 주도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과 별개로 클라우드매직은 해당 주식을 넘겨받자마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공시도 없었다. 사실상 무자본 M&A(인수·합병)를 한 셈이다. 현행법상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비밀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 위반과 횡령 등 불법 혐의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라진 100억 원 역시 의문점이다. 현재 피의자들은 사라진 돈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일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돈의 행방이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소재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행방에 대해 클라우드매직과 변 대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기영 기자 pgy@

bithumb 빚섬 www.bithumb.com

빗섬 지수 (2019년 5월 14일 17:00, KST)

전일 대비	1,520,000원 (5.5% ▼)	6개월 대비	3,620,967원 (58.5% ▲)
전일 대비	31,400원 (5.9% ▼)	6개월 대비	55,837원 (28.4% ▲)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85,000	66,800 (16.0% ▲)	모네로	96,900	10,400 (12.0% ▲)
리플	463	81 (21.2% ▲)	비트코인골드	26,490	2,660 (11.2% ▲)
라이트코인	109,400	9,850 (9.9% ▲)	이더리움 클래식	7,810	870 (12.5% ▲)
대시	167,700	17,100 (11.4% ▲)	퀀텀	3,310	376 (12.8%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수도권 뉴타운 올 2만 가구 공급

도심 새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3기 신도시 발표에도 분양 예정 단지 인기

최근 분양시장에서 뉴타운 및 도시개발 구역 아파트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의 물량은 넘쳐나는 반면, 도심권에서는 새 아파트가 부족해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심권 물량 중에서도 뉴타운과 도시개발구역 단지는 높은 직주근접성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춰 희소성과 미래가치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및 도시개발구역 등 도심권 개발 지구 단지들은 2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몰렸던 2009년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당시 은평뉴타운이 위치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12.27대 1이었던 반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0.19대 1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구역인마곡지구도 분양시장에서 선전했다. 마곡지구 분양이 시작되던

시점인 2013년, 당시에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광고신도시가 0.69대 1, 동탄2신도시 1.07대 1, 김포한강신도시 0.2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2.28대 1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뉴타운 및 도시개발구역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수요 또한 높은 상황이라 프리미엄도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로 30만 가구가 예정된 현재 시점에도 서울 및 주요 수도권 도심지역의 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신규 분양 단지는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뉴타운이나 도시개발구역에 공급되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꾸준히 물량 공급에 나서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및 수도권 뉴타운 및 도시개발구역 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은 22곳, 총 2만2009가구에 달한다. 올해에는 우수한 입지와 더불어 개

발 호재까지 갖춘 지역에서 물량이 나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월에는 지난해 인천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신영이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를 공급하고 6월에는 경기 수원시 망포4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물량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4지구 도시개발구역 3·4·5블록에서 '수원 영통 아이파크캐슬 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서도 공급계획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북위례 분양으로 일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거여마천뉴타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거여마천뉴타운 2-1 구역에서 롯데캐슬 단지를 분양하고 이외에도 신길뉴타운 3구역(368가구), 경기 광명뉴타운 15R구역(485가구), 아현2구역(31가구), 광주역세권도시개발구역(1031가구) 등에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분양경기 별드나... 8개월 만에 70선 회복

이달 전망치 77.2... 서울·경기는 지난달보다 하락

전국의 분양경기 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시장침체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7.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올랐다.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수의 기준선은 100이다. 지난달 전국 HSSI의 실적치는 66.6으로 3월 실적치(65.6)보다 1.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지표가 일부 회복됐지만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분양경기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이달 서울의 HSSI 전망치는 90.7로 전월 전망치(96.0)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4월 HSSI 실적치도 3월 실적치(88.0)보다 4.7포인트 낮은 83.3으로 집계됐다.

경기 역시 이달 HSSI 전망치는 전월(86.2)보다 10.3포인트나 하락한 75.9로 나타났다. 4월 실적치(72.2)도 3월 실적치(80.0)를 밑돌았다. 수도권의 이달 HSSI 전망치는 77.4로 전월 전망치(85.5)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 4월 실

적치(72)는 3월 실적치(79.8)보다 7.8포인트 떨어졌다.

지방 HSSI 지수는 상승했으나 기준치를 여전히 크게 밑돌았다. 분양여건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지방의 이달 HSSI 전망치는 77.1로 전월 전망치(66)보다 11.1포인트 올랐다. 4월 실적치(65.4)도 3월 실적치(62.5)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의 이달 HSSI 전망치는 74로 전월 전망치(45.8)보다 28.2포인트 올랐다. 대구의 이달 HSSI 전망치도 90.3으로 전월 전망치(62.9)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의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며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수요가 특정 인기단지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 및 국지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여의도 공실률 2014년 이래 최저

금융사 입차에 1분기 '10.6%' 전체 거래 규모 2조400억 원

여의도 공실률이 5년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오피스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여의도 권역(YBD) 공실률이 10.6%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이내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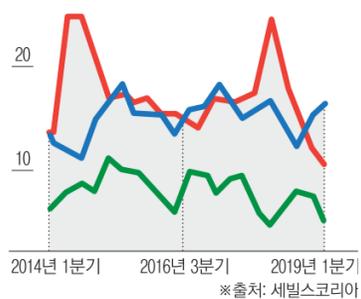
올해 1분기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11.7%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7%p 하락했다. 세부 권역별 공실률은 도심권역(CBD) 16.4%, 강남권역

(GBD) 5.6%로 집계됐다.

CBD는 전통적으로 수요를 견인하던 대기업과 보험사의 감평으로 전 분기 대비 0.7%p 소폭 상승한 16.4%를 기록했고 GBD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산업군의 성장과 대형 임차인의 확장 통합이 전으로 전 분기 대비 2.1%p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YBD는 금융사 위주의 입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했다.

올해 2분기 YBD에서는 메리츠증권증권이 본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IFC3에 입주할 예정이고 IFC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가 2분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져 공실률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 (단위: %) 도심권역(CBD) 강남권역(GBD) 여의도 권역(YBD)



이올러 1분기 오피스 투자시장 총거래 규모는 약 2조400억 원을 기록했다. 연말에 상승했던 대출금리가 다시 하락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약 2조2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산 '힐스테이트 명륜 2차' 3.1대 1로 청약 1순위 마감

올해 부산 첫 번째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아파트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1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68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2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3.1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84㎡A 타입에 1354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6.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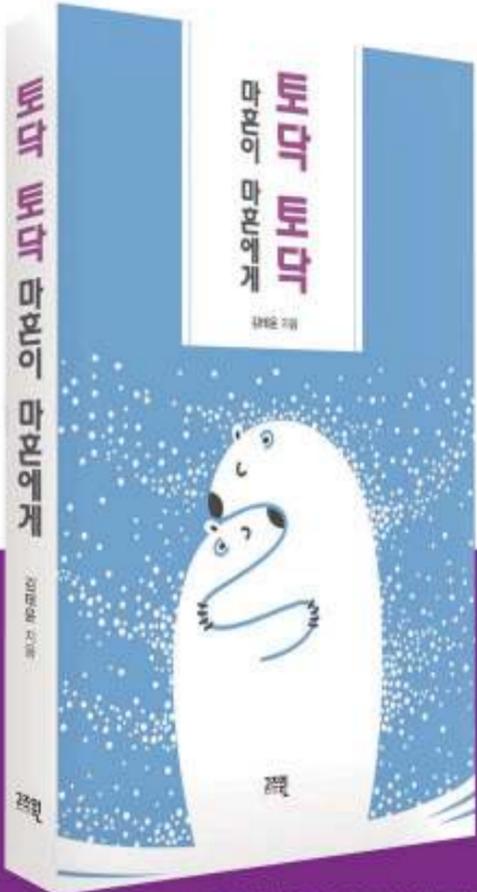
힐스테이트 명륜 2차 투시도.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청약에서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 무순위 청약에서 35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1순위 당해지역에서 청약을 마친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21일 당첨자 발표를 시작으로 계약 일정을 진행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카카오>

김범수 의장 1심서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되나

법원 “계열사 미신고 고의 아냐” 무죄 확정엔 적격성 심사 수월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사진)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상세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대해 검토하거나 서류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의 행보에 녹색등이 켜졌다. 카카오는 지난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장이 기소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영장심사 마친 승리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주 매각 피해” 현대증권 직원들 대표소송 패소

대법 “원고 자격 없어”

옛 현대증권 직원들이 2016년 당시 KB금융지주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28명과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경은 전 KB투자증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6년 5월 31일 윤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1670

만 주를 KB금융에 이남 증가인 주당 6410원에 매각해 피해를 봤다며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이 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 등은 소송 당시 현대증권 발행주식의 약 0.7607%인 180만 주를 보유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년 10월 KB금융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현대증권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됐다. 이로써 이 씨 등은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KB금융의 주주가

됐다. 1심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이 씨 등이 원고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이 씨 등은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은 자신들의 소송 진행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강제로 이뤄졌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KB금융이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의 진행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제기 청구로 인해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취약계층도 올 여름 시원하게” 서울시 전기료 바우처 첫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힘겹게 무더위를 견디는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한다. 올여름부터 가구당 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구당 겨울 난

방비 12만 원 내외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하절기 에너지 비용도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이달 22일부터 평소 전기료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는 자세한 종합상담도 진행한다.

신성한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은 7~9월 고지된 전기요금으로 자동 차감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청소년 20만 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의존도 더 높아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급단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폰보다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19일 한 달간 실시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0만6102명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7만1912명이다. 2017년 20만2436명이었던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18년 19만6337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19년 20만6102명을 기록하며 또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과의존 청소년보다 인터넷과의존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의존 위험군은 15만4407명인 반면,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은 12만3607명으로 조사됐다. 김소희 기자 ksh@

비트코인 독주... 시장 부활의 징조?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50%(코인마켓캡 기준) 수준에서 급격히 상승해 60%를 넘었습니다. 투자자 사이에선 이를 무협지에 나온 무공인 '흡성대법(吸星大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흡성대법은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기공으로, 다른 코인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5개월 만에 150% 상승 =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연저점인 3138.27달러(코인베이스 기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현재 7807달러(14일 9시 기준)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하락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특히 골든크로스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합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평균 이동선 위로 올라가는 교차점으로 4월 19일에 50일간 평균 가격(코인베이스 기준)이 200일간의 평균 가격 위로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이와 반대 개념인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투자자 사이에선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골든크로스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Bakkt)가 7월에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겠다고 밝힌 것도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4일 켈리 로플러 백트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자산 위탁 서비스의 이용자 수용 테스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몇 주 내로 이를 위한 고객사들과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독주는 상승장 초기 증상 = 일부 전문 투자자들은 "2017년 비트코인이 독주하는 시장 형성이 상승장 신호가 됐다"며 "당시 비트



5개월 새 150% ↑ 8000달러 눈앞 시장 점유율도 50%서 60%로 '경중' 美거래소 '백트' 선물 거래 호재 작용 알트코인 난립에 대장코인 주목 효과

투자자들 1만 달러 회복 여부 촉각 전체 상승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와 분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지금의 장세가 2년 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봐도 뚜렷한데요. 2017년 6월 비트코인 점유율이 37%대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세를 타면서 상승장의 정점이던 12월 64%대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의 총칭)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2018년 1월 37%대까지 하락했죠.

다만 비트코인의 상승 이유가 다른 코인에 대한 신뢰 하락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승장에 너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하기 힘들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는 대장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죠.

◇1만 달러가 분수령 = 비트코인은 벌써 8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1만 달러를 회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톰 리 펀드스트랫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르면 FOMO(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현상)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은 45%가 1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32%는 2만 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전 불마켓 당시의 최고가죠. 23%는 지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만 달러가 넘었을 때 투자자 반 이상이 상승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파죽지세에 다른 코인들의 상승세가 초라해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비트코인의 상승장 이후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단순한 논리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 전문 투자자는 "과거의 패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투자 전략일 수 있지만, 항상 예상이 빗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 이모저모

미국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를 미국 금융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가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기반 새로운 ETF 검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 지표를 따르는 새로운 가상화폐(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제안서가 등장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 크레센트 크립토에셋의 자회사 크레센트 크립토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USCF 크레센트 크립토 인덱스 펀드(XBET)'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ETF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현재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55%, 이더리움은 10%를 차지한다"며 "XBET 투자 목표는 주당 순자산가치(NAV) 일일 변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 지표를 추적하는 '크레센트 크립토 코어II 인덱스(CCINDX)' 지수의 일일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C "비트코인 폴노드 지원 블록체인폰 준비"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두 번째로 준비 중인 블록체인폰을 비트코인 폴노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HTC 탈중앙화 부문을 담당하는 필 첸(Phil Chen) 수석은 뉴욕 매지컬 크립토 콘퍼런스 연설에서 블록체인폰 '엑소더스 1s'가 비트코인 폴노드로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C는 올해 3분기 말 엑소더스 1s를 선보일 예정이며 가격은 250~300달러 선으로 더 저렴해진다.

이더리움재단, 올해 3000만 달러 개발 지원

이더리움재단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개발 자금 지원을 준비 중이다.

컨센시스가 주관한 '이더리얼(Ethereal)' 서밋에서 이더리움재단의 아야 미야구치(Aya Miyaguchi) 이사는 올해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3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더리움재단은 네트워크 성능과 보안을 향상하며,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와 개발사를 지원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관심해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민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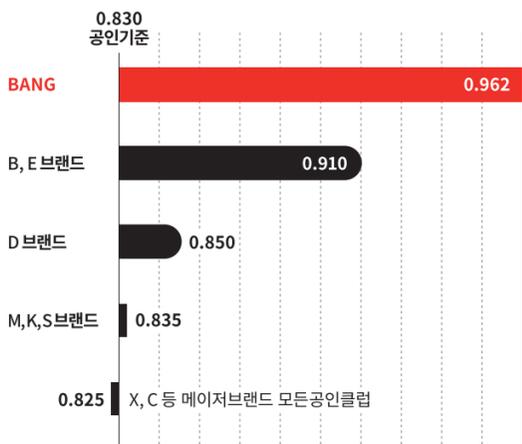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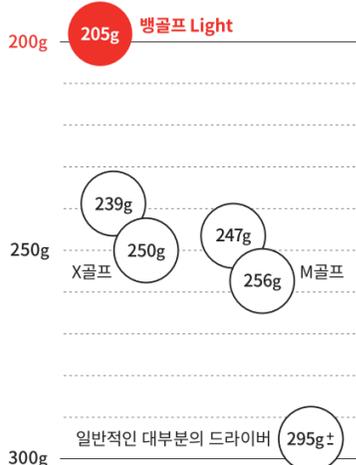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반도체 공정 온도제어 ‘칠러’ 왜 국산화 안 됐지?”

9월말 시제품 제작 앞둔 김형규 SK하이닉스 기장

문제 발생하면 엔지니어 올 때까지 허송세월 “내가 해보자”
11년차에 ‘기술명장’... 퇴근 후도 지하 연구실서 개발 몰두

우리나라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반도체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온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Chiller)’다. 영하 70도의 극저온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대부분 칠러 장비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김형규 기장은 이 칠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곧 꿈이 현실화 된다. 입사 후부터 줄곧 칠러에 매달려온 김 기장은 SK하이닉스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이게라지(HiGarage)’를 통해 본격적으로 칠러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팀명은 ‘차고 엔지니어링’이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차고에서 시작한 아이디어로 세계를 움직일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가 담겼다.

김 기장이 칠러 연구에 뛰어든게 된 계기는 현장에서 겪은 ‘답답함’ 때문이었다. 테스트 공정의 칠러는 공정 상황과 기술력의 한계로 외국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 엔지니어들이 도착할 때까지 1-2주를 속절없이 흘러 보낼 수밖에 없었다. “왜 국산화 안 됐지?”라는 의구심에서 그의 꿈이 시작됐다.

김 기장은 “반도체 P&T 칠러의 경우 영하 70도의 극저온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년간 직접 분석해 보니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었다. 회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좀 더 시야를 넓혀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보이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입사 후 줄곧 칠러에 집중해온 김 기장은 SK하이닉스 내에서도 인정받는 ‘칠러 명장’이다. 기장 또는 입사 15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기술명장’을 입사 11년 차에 받았다. 10년 넘게 칠러를 연구했으며 입사 초부터 제품을 뜯어보고, 학교로 달려가 누구든 만났던 그다. 회사뿐만 아니라 집 베란다에 작은 연구실을 만들어 취미처럼 이론과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지



김형규(오른쪽 두 번째) SK하이닉스 기장과 팀원들이 칠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하 연구실을 따로 얻어 퇴근 후에도 칠러 연구에 몰두했다.

김 기장은 성능과 효율이 개선돼 필요한 공정에 딱 맞는 온도로 냉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 기장은 9월 말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칠러 아이템은 10년도 넘게 연구해오고 있는 것”이라며 “입사 초부터 연구하면서 하나씩 뜯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는 오랜 연구를 거쳐온 만큼 세세한 오류를 없애고 용도에 맞게 안정화하는 등 미세한 문제만을 남겨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칠러 생태

계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한 칠러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장에서 진짜가 굵은 펌프 전문가, 용접 전문가, 제어 전문가 등 칠러 관련 전문가를 한데 묶어주는 인프라다. 또 하나는 리퍼비시(Refurbish) 칠러다. 한 사업에서 기준에 안 맞는 칠러가 있을 때 해당 칠러를 다른 분야로 연결하는 것이다. 칠러 부품을 재사용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산업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

김 기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하는 팀원들이기에 든든하다”며 “기술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료·축산 농업법인 ‘그린그래스’
유망 농식품 벤처 ‘A-벤처스’ 1호

그린그래스(대표 신승호·사진)가 유망 농식품 벤처기업인 ‘A-벤처스(어벤처스)’ 1호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달의 어벤처스’로 그린그래스를 선정했다. 어벤처스는 농식품 벤처(Agri Venture)와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야 할 ‘어벤처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린그래스를 시작으로 매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농식품 벤처를 어벤처스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린그래스는 프리미엄 사료와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오메가3와 오메가6를 함유한 고품질 한우·젓소용 사료가 대표 상품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 창업한 지 3년 만에 매출 7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년간(2018-2019년) 유지한 투자액도 100억원이 넘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나이지리아 음보음바 빈민가에
LG전자, ‘무료 세탁방’ 문 열어



LG전자는 나이지리아 리버스 주(州) 포트하커트시의 음보음바 마을에 있는 LG 브랜드숍에 무료 세탁방인 ‘라이프스 굿 위드 LG 워시’ 개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무료 세탁방에는 최신 세탁기, 건조기 외에 다리미,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 빨래에 필요한 용품들이 마련돼 있다. LG전자는 “음보음바 마을의 물과 전기가 심각하게 부족해 주민들이 빨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곳에 무료 세탁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탁방을 여는 데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임원사회공헌기금’이 사용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류현진, ‘MLB 이 주의 선수’ 수상
진출 후 처음...한국 선수로 5번째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이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 이 주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선수로는 박찬호·김병현·추신수·강정호에 이어 5번째다.



MLB 사무국은 14일(한국시간) 5월 둘째 주 이 주의 선수로 류현진, 마이크 파이어스(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주 두 경기에서 보여준 ‘역대급 활약’을 미국 현지에서 인정받았다. 17이닝을 던지며 1점도 내주지 않는 투구 내용은 물론 삼진을 15개를 잡아내면서도 사사구는 1개만 내준 제구력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93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6탈삼진 무사구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둔 류현진은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도 8이닝 동안 1피안타 9탈삼진 1볼넷 무실점을 기록해 승리 투수가 됐다. 홍인석 기자 mystic@

“코리빙·학생기숙사, 대체투자상품 떠올라”

피터 영 큐인베스트먼트 CEO 자산관리 설명회...금융사 제휴 추진

코리빙 및 학생기숙사 투자가 새로운 부동산 대체투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큐인베스트먼트(QIP)가 주최한 ‘선진국 부동산 시장에서 찾는 자산관리 대안’ 설명회가 열렸다. 미국, 호주 및 독일 등 선진국 시장에서 새로운 대체 부동산 섹터로 떠오르는 코리빙과 섹터에 대해 국내 고액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및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자산관리 설명회다.

피터 영(사진) CEO 겸 공동설립자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코리빙 및 학생기숙사 섹터의 채권 및 주식 상품을 소개하게 돼 매우 기쁘고 설렌다”며 “큐인베스트먼트는 코리빙 및 학생기숙사 섹터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투자처 발굴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한국의 금융회사들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약 1년 안에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 본



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몇몇 회사들과는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리빙은 주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서 구

성원들이 서로 원활히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리빙에 거주하는 젊은 직장인들은 같은 지역의 다른 주거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임대료 부담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주)한화, 사내 마음의 스승에 감사편지 보내기 이벤트

(주)한화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사내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편지’ 이벤트(사진)를 진행했다.

(주)한화는 이달 2-9일 직원들이 회사 생활 중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직장 선배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응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중 5개의 사연을 선정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직접 작성한 편지와 꽃다발 등의 선물을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최우수 사연으로 선정된 기술영업팀 김준걸 대리는 “기술영업이라는 새로운 업무 적응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팀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직무 코칭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팀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주)한화는 이번 ‘스승의 날 감사 편지’ 이벤트뿐만 아니라 ‘(주)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당신의 신입사원에게 투표하세요’ 등 소통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공간정책과장 노진학 △한반도연안재생과장 홍원식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조창선

◆KBS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주간(미디어플랫폼) 채영석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장 이형근 △기술본부 기술관리국 기술기획부장 신중현 △기술본부 미디어인프라국 송신시설부장 장호진 △기술본부 미디어인프라국 시스템추진부장 김철환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소래송신소장 조길영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화성송신소장 황구연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미디어플랫폼) 미디어송출부장 이택순 △기술본부 제작

기술센터 TV기술국 총감독 고문안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TV기술국 총감독 조승완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 총감독 백종선 △제작2본부 콘텐츠사업국장 박현민 △전주방송총국 기술국장 신권율 △청주방송총국 기술국장 고용석

◆KBS미디어 △스마트사업본부장 전진학 △디지털미디어센터장 박창욱
◆가톨릭평화방송 ◇승진 △보도총국 보도제작부 부장 김혜영
◆아주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교문 김세원 △기획위원 겸 전략국장 최수목
◆비즈니스포스트 △편집국 후이즈콘텐트 부부장 겸 후이즈부장(부국장) 박보현 △편집국 금융증권부장(부국장대우) 김수정 △편집국 유통바이오부장(부국장) 나권일

부음

▲최장현 씨 별세, 백하용·유하 씨 모친상, 박구서(JW홀딩스 전 부회장) 씨 장모상 = 13일, 충남 서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40분, 041-952-4480
▲차상재 씨 별세, 차유자·용규(전 울산방송 사장·전 OBS경인TV 사장·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미자·명규(개인사업)·명숙 씨 부친상 = 14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51-607-2651
▲김준겸 씨 별세, 김재형(캠코 경기지역본부 선임전문위원) 씨 부친상 = 14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층 305호,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31-219-6654

▲송성윤(전 하나은행 상무보) 씨 별세, 송호철(사업)·지명(삼성물산 차장)·호준(사업) 씨 부친상, 박한옥(삼성물산 차장) 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6일 오전, 02-3410-6920
▲김국자씨 별세, 이동립(사업)·동익(동화인쇄공사 회장)·동수(재미)·순심·동준(서대문구체육회장)·동호(재미) 씨 모친상, 이석인(동화인쇄공사 부사장) 씨 장모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2227-7547
▲서상정(전 KBS 미술부장, 전 SBS 국장) 씨 별세, 박승원 씨 남편상, 서병수(㈜이삼사 대표)·병찬(삼성전자 부장) 씨 부친상, 김현아(일동제약 부장) 씨 시부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02-2227-7563

게시판

임만성 교수,美 원자력저널 부편집장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임만성 교수가 미국 원자력학회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저널’ 부편집장으로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22년 4월까지 3년 동안 아시아권 원자력계 주요 연구 성과를 전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KB증권, VIP고객 초청 전인지 골프콘서트
KB증권은 13일 경기도 용인 소재 화산 컨트리클럽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과 함께하는 전인지 골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콘서트에서는 KB증권 박정림 사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KB증권 VIP고객 108명과 전인지 프로 및 KB증권 임직원 36명이 각 조에 편성돼 동반 라운딩을 펼쳤다.



KB증권은 13일 경기도 용인 소재 화산 컨트리클럽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과 함께하는 전인지 골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콘서트에서는 KB증권 박정림 사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KB증권 VIP고객 108명과 전인지 프로 및 KB증권 임직원 36명이 각 조에 편성돼 동반 라운딩을 펼쳤다.

중국 지금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중 규제개혁의 현장, 자동차 자판기

중국 정부의 '發展中解決問題(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 규제 개혁 마인드는 핀테크, 드론 및 신유통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 카바나(CARVANA), 싱가포르에 아우토반 모터스(Autobahn Motors)의 자동차 자판기가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만든 티몰 자동차 자판기가 있다. 현재 광둥성에 3개(광저우, 윈푸, 샤오관), 상하이에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 알리바바의 신용정보 시스템인 '즈마 신용(芝麻信用)' 등급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즈마신용등급은 중국 정부와 알리바바가 협력해 만든 신용평가시스템으로 기존 금융신용등급, 지불이행능력, 보증인, 소비성향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한다.

면 2016년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가 넘고, 거래규모는 1010억 위안(약 17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12~2017년 6년 동안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량은 약 70% 늘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14%의 5배에 달한다.

오리무중인 상태.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2월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좀 더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정책발언대

이재무
한양대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국민청원 게시판이 싸움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래 뉴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슈들은 공통점이 있다. 1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사례와 같이 이슈들 모두가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이라는 점이다.

생각하지만 정작 청원의 당사자들인 국회의원 중 일부가 해당 청원에 대해 극렬하게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니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삭발을 촉구하거나 바르지 않은 언행을 한 전 야당 대표에게 형사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는 청와대에 대한 청원으로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청와대는 제1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논리와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 역시 청와대의 업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답변하여 매듭을 짓고, 처리될 수 있는 일이라면 관련 부처로 신속히 인계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종대왕 명언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설령 정적(政敵)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카드업계의 침묵이 길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이종고를 겪었다.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카드사는 수수료율 인하를 통보받았다. 올해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 약 80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12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총과업을 전제로 △레버리지율 완화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 △부가서비스 철폐를 요구했지만 한 달째 금융위는 침묵하고 있다.

지만, 공개적 성과 발표는 지금까지 없다. "신상품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신청하면 죄다 보류당하고 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금융당국과의 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곤란한 상황이다."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침묵이 계속되는 데 혼란함을 토로했다. 애당초 어그러진 한 해 경영계획은 물론 당장 사업을 위한 카드 한 장 내지 못하는 카드사의 입장은 난처할 뿐이다.

☆ 시사상식 / 팍리스(fables)
제조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를 말한다.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과 리스(less)를 합성한 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가라, 타이푼!”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자국민 피랍사건이 생기면 각국 정부는 “테러와의 협상은 없다”며 상투적인 단호함을 앞세운다. 하지만 오히려 없는 것은 대부분 협상이 아니라 결단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푸짜르(Tsar, 군주)’라 불린다. 듣는 이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단어이겠지만, 러시아인들은 칭찬 섞인 별명으로 쓰는 듯하다.

2008년 케냐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국적 상선 페이나호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T-72전차 30대를 비롯한 러시아의 수출용 무기가 실려 있었다. 해적들은 악명 높은 해적항으로 배를 옮긴 뒤 화물들을 팔궜다. 이쯤에서 멈췄다면 별일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이 부은 해적들은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인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되자 러시아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푸틴은 협상 대신 키프로프 대순양함대 파견을 지시했다. 이 함대는 러시아가 미국 항공모함 선단과 맞짱을 뜨기 위해 만들어둔 전투함 선단으로, 대공·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다.

저승사자 방문 소식에 겁먹은 해적들은 황급히 “몸값 안 줘도 된다”며 인질들을 석방했다. 하지만 불굴급 함대는 방향타를 돌리지 않았다. 러시아 해군은 사로잡은 해적들을 작은 수송선에 옮겨 태운 뒤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 푸틴의 명령을 기다렸다. “가라, 타이푼” 한마디와 함께 함포들이 불을 뿜었고, 집중포격을 맞은 조카배와 해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일이 전해지자 서방 언론들은 푸틴과 러시아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자 러

시아 해군장교가 그들을 향해 한마디했다. “테러와의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이후 한동안 소말리아 해적들은 러시아 국기를 단 배가 보이면 공포를 빼기 일쑤였다고 한다. 하지만 제 버릇 개 주기는 역시 쉽지 않은 법. 2년 뒤 러시아 유조선이 납치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2010년 5월 소말리아 해적 11명은 중국으로 향하던 러시아 유조선과 선원 23명을 납치했다. 이후의 일은 두말하면 순차다. 푸틴은 구축함 마살 샤프쉬니코프호에 이번엔 특수부대 ‘스페츠나츠’를 투입했다. 스페츠나츠는 크림반도 사태 당시 하룻밤 사이 우크라이나 정부 관청과 공항, 군 기지 등을 모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무장해제시킨 인간 타노스들이다.

선원들을 전원 구조하고 선박에 실렸던 8만6000톤의 원유도 확보한 러시아 해군은 “해적 두목은 그 자리에서 사살했고 나머지 10명은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2년 전 페이나호 사건 당시 “잔인한 짓”이라던 서방의 비난을 의식한 듯 보였다. 하지만 푸짜르가 남의 눈치 보는 인물이었다. 러시아는 해적들을 항법장치나 동력장치 등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는 고무보트에 태웠다. 그리고 위치추적용 소형신호기 하나를 보트에 던져 넣은 뒤 해안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트려 놔

다. 이 지역은 몸길이 10m가 넘는 백상아리 군락지라고 한다. 그들을 바다에 버리고 온 지 한 시간여 뒤, 인근에 대기하던 러시아 해군은 추적기 신호가 끊기는 것을 확인한 뒤 철수했다.

“풀어주라”며 들끓던 서방 언론들은 다시 별때처럼 달려들었다. 러시아가 장교는 태연하게 응답했다. “풀어주라?”

프랑스 특수부대가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해낸 일을 놓고 감사와 애도, 분노 등 다양한 반응들이 뒤섞이고 있다. 누구 탓 인지는 차차 알게 될 테고 무사히 돌아오니 흥분할 일이 못 된다. 오히려 기억해야 할 일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점이다. 모 건설사 기술자로 알려진 그는 2018년 7월, 리비아 서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우리 정부가 언론에 엠바고를 걸며 숨기다가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동영상 올라오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납치된 줄 몰라서 못 구했다는 이번 인질과는 달리 핑계거리가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아덴만의 여명’의 주인공 청해부대가 있고 UDT, SSU, 707특공단 등 스페츠나츠 못지않은 특수부대가 준비하다(예비역들 위-위-). 그런데 군사전문가들이 뽑는 글로벌 특수부대 순위에서 우리 군의 등수는 기대에 못 미친다. 그들이 지적하는 한국군의 약점은 ‘실전 경험 부족’이다. 유일한 분단국에 수시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군대에는 다행일까, 치욕일까. 구해 달라는 국민이 있고, 상대는 테러범이다. 당연히 신중해야 하고, 이유는 모두가 안다. 하지만 “가라, 타이푼”이 한편 부러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whan@

시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내년 최저임금도 종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마비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새로 짜여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말까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들의 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장의 현실과 수용능력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에 얽매어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랐다. 그 결과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쉼페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

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늘 좁혀지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인상폭이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 2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정부 편향적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였다. 게다가 심의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자 정부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의 구상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들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심의도 걱정스런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모두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이념과 성향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현실, 시장의 수용성,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익위원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 또다시 무리한 인상으로 경제와 고용에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내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동결까지를 포함해, 이번에는 반드시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당면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실리콘밸리 대기업, 해체가 정답일까

거대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 선의(善意)에 대해 의심받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또 미국 가구의 약 절반은 유료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한 상태. 그러나 너무 덩치가 커졌다고 IT 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선부른 결론이 아닐까.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친구인 휴즈의 회사 분할 요구에 대해 11일 직접 답했다. 그는 “여러분이 정말로 민주주의와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가짜 뉴스 등)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개선된 도구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회사를 원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보안 관련 예산은 10년 전 기업 공개(IPO) 당시 매출보다 더 많다”고 항변했다.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만 아니라면 저커버그의 지적이 타당할 수 있겠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도 페이스북 사용은 자발적이며 그동안 정부 등에 소외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 있다고 해체에 반대했다. 또 포브스는 과거

반독점 규제를 받은 스탠더드오일과 AT&T는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석유와 통신 서비스를 다루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했다.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페이스북 플랫폼을 떠날 수 있고, 이는 그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안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독점 규제는 기업들이 자신의 힘을 약화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대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막강한 지배력이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과 이메일, 지도와 번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한다. 아마존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현명한 규제여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함부로 갈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식(知識)과 지혜(智慧)

학생들은 공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느라 힘든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자기계발의 의지가 없이 그야말로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일 없이 밥만 축냄)’하며 시간을 허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책은 아예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곳저곳 사이트에 클릭거리거나 오락게임을 할 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대학생이라면 기본으로 해야 할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에도 익숙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도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드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다. TMI(Too Much In-

formation)라고 할 만큼 잡다한 지식은 많지만 그런 지식을 잘 꿰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바탕으로 활용하려 하는 학생은 쉬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쨌든 남을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만 부추기며 남보다 많은 지식의 양이 곧 남을 이기는 길이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 지식은 늘었지만 지혜의 샘은 오히려 마려 버린 것 같다. 중국 청나라 때의 시인인 원매(袁枚)는 “서다 이용 고내멸등(書多以廢, 膏乃滅燈)” 즉 “책이 많이 읽었으니 지혜의 샘이 마려 있으면 기름이 곧 불을 꺼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통에 가득한 기름 위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본들 그 불씨는 기름을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기름에 파묻혀 꺼져 버린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도 학부모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에 의해 오히려 지혜가 막히는 교육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壑:막힐 웅, 膏:기름 고, 滅:꺼질 멸, 乃:곧 내, 燈:등불 등.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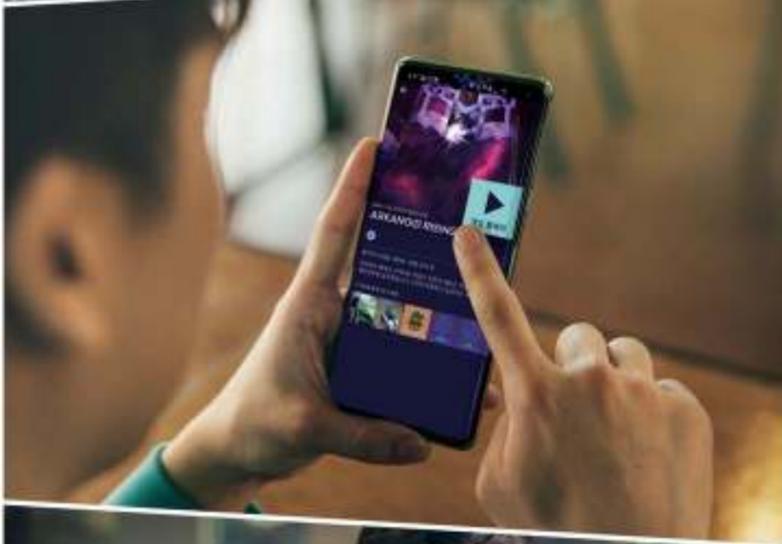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pring, 2019

My Story with Galaxy S10 5G

Game Streaming + Galaxy S10 5G



게임동아리 회장 김근동의 S10 5G 리얼 스토리

게임용 PC, 초고속 인터넷 없이도 세상 모든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요

게임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만나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다 같이 만나고 즐기는 과정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죠. 다양한 게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작년에는 제가 직접, 학교 게임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고사양 게임도 이제 5G의 엄청난 속도로, 동시에 다 함께, 즐겁게!

게임 동아리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회원들이 다 같이 게임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PC 사양이 제대로 갖춰진 PC방이나 실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10 5G로 바꾸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죠. 트라하 같은 고사양 게임을 이전 야외에서, 여러 명이 함께, 끝내주는 속도로 즐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게임을 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요즘엔 야외에서 광합성 하면서 게임 대항전도 하고 게임 토론도 합니다.

갤럭시 S10 5G로 다양한 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바로 즐기기

게임 동아리 회장이자 보니, 더 많고 다양한 게임을 정복하고 싶더라고요. S10 5G와 함께 하니 이전 다 가능해졌어요! 100종 이상의 게임 콘텐츠를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HATCH앱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핫한 게임, 알카리드 라이징도 다운로드 없이 게임 플레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즐길 수 있거든요. 또 게임 인기순위, 맞춤 게임 추천까지 해주니까 정말 세상의 게임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격파하는 기분이랄까요. 재미있는 게임을 발견하면 협력 플레이도 걸고, 편을 먹고 경쟁 플레이도 할 수 있어요. 갤럭시 S10 5G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동아리 방이 됩니다.

* 해당 게임 스트리밍 기능은 특정 항목만을 통해 지원됩니다. * 5G 서비스와 전송 및 사용 속도는 사용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며,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